APR 20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한국일보 토론토

No.1112 1983년 4월20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Wednesday, April 20,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 미법정의 일방적 이혼판정받은 한국 여인 진정서

# "眞相조사하라" 첫 指示

## 외무부, LA총영사관에 공문…결과 주목

(LA지사)재미교포가 미국법정에서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판결받은 혼인무효판시에 대해 피고(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측이 진정서를 제출, 외무부가 LA총영사관에 진상을 조사해보도록 특별지시해 그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포들의 혼인무효와 관련, 한국정부 당국이 피고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나선것은 LA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외무부가 지난7일자로 LA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이사전을 국내 배우자가 알지못하는 사이 재판을 진행시켜 피고측(부인)이 너무나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김태희 여인은 진정서에서 82년 2월9일 교포 권모씨와 중매결혼, 2월13일에 종로구청에 혼인신고했으나 남편 권씨는 그해 5월9일 출국하면서 부인의 미국초청관계서류를 발송하겠다고 한후 3개월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다고 한다. 그후 김여인은 8월23일 시부모로 부터 남편이 발송한 혼인무효소송관계서류를 받고 놀랐다는것.

게다가 미국 법정판결로 남편 권씨 호적에서 자신이 말소됐음을 지난 1월 발견한 김여인은 「미국법원은 한편 배우자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시할 수 있는가」라면서 외무부에 탄원서를 냈다.

한편 이 사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LA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국내법과 미국 민법상의 차이는 오래전부터 교포들과 국내인들에게 혼동을 주고있다」면서 「이번 케이스를 계기로 해외교포와. 한국에 있는 배우자의 민법상 혼인무효관계개념에 기준이 세워질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회교도 극렬분자에 의해 폭파된 베이루트 미대사관앞에서 미해병대 대원이 완전무장으로 경비를 맡고 있다.

## 이자율 계속하락

### 프라임·데이트 4년반만에 최저

물기지, 소비자및 기업대부 이자율이 18일 또다시 하락했다.

토론토·도미니온은행, 로열은행,몬트리얼은행, 노바스코시아은행, 캄머스은행등 4개은행은 우량기업 대출금리인 프라임·레이트(prime rate)를 0.5% 내린 11%로 고시, 4년반만에 최하를 기록했다.

1978년 10월 프라임·레이드가 11%로 내려갔었다.

토론토·도미니온은행은 또한 물기지율도 일률적으로 4분의1%내려, 1년형 11%, 2년형 12%, 3년형 12.5%, 5년형 13.25%로 고시했다.

도미니온은행은 또한 최저소비자 대부율도 13.5%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 개방정책 택할 조짐

### 제2인자로 부상한 김정일

(서울=외신)

김일성(71)의 아들 김정일(43)은 자신의 지위를 굳히는 방편의 하나로 제한된 개방정책을 추진할지도 모른다고 한 정통한 소식통이 17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그동안 제2인자로 부상, 공산당과 80만 병력을 장악했다고 밝히고 노동자들의 조직이나 관리조직등 모든 조직에 자신과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간부들을 배치해 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아직까지 김정일이 공식직함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히고 「당중앙」으로 불리는 자신의 정치업적을 강화하는데 부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 방편의 하나로 제한적이나마 개방정책을 추진하려 들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지도자들이 지금까지의 폐쇄정책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소식통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계승할 것이라는 확실한 조짐은 없으나 김일성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권력이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베이루트 미대사관 폭발

### 39명사망, 대사등 100여명부상

(베이루트)레바논의 정치적 평화를 꿈꾸던 미국이 또한번의 시련을 맞았다.

18일 오후1시(현지시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시내의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300Kg으로 추정되는 폭탄이 터져 대사관 전면 일부가 폭파되고 적어도 39명이 사망했으며 100여명 이상의 부상자를 낸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폭발로 인해 로버트·딜론 미대사는 무너진 사무실 파편밑에 깔려 몸 여러곳이 찢기는 상처를 입었으나 7층 발코니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다른 곳을 거쳐 무사히 빠져나갔다.

폭발당시 대사관 비자과에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줄을 서 서류를 제출하고 있었다.

사고후 가장 빨리 출동한 프랑스 평화유지군과 엠불란스의료진은 현장을 수습하느라 동분서주했다.

미국무성 발표는 이 사고로 적어도 6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폭발은 지난달 국제평화군을 수류탄으로 살상한 모슬렘격렬분자들의 소행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폭발현장은 즐비한 부상자와, 폭발로 내려앉은 건물의 파편과 유리조각, 10여대의 파괴된 자동차의 화염등으로 수라장을 이루었다.

현지 미국대학병원은 급파된 미해병 경호에 의해 운송된 시체와 부상자들로 인해 혼잡을 이루었다.

급보에 접한 레이건 미대통령은 "이같은 범죄테러는 용납할 수 없으며 평화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어떤 것이 옳은지의 모종행동을 할때" 라고 말했다.

레바논의 아민·게마옐 대통령은 전화를 통해 레이건 대통령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한편 폭발당시 중동평화사절로 레바논에 있던 하비브씨는 마침 현장에 있지 않았다.

## 여성문제 전담장관 신설

### 온타리오주 최초, 금주안 발표

온타리오주정부의 정통한 소식통은 가능하면 금주안에 온타리오 최초로 여성문제 전담장관이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문제장관으로 밥·웰취 에너지장관, 토이·맥머트리 검찰총장, 밥·엘지 소비성장관, 2명의 여성장관인 베티·스티븐슨문교와 마가렛·버취 사회개발장관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데이비수상은 18일 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 부서의 장관은 온타리오 사회의 모든 여성문제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5월2일로 연기

### 개인소득세 신고마감일

(오타와)매년4월말로 되어 있는 개인소득세신고 마감일이 금년에는 5월2일로 연장되었다고 캐나다국세청(Revenue Canada)이 발표했다.

연장이유는 금년에는 4월3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이다.

♛란콤화장품 보너스쎄일
로렉스
오메가시계 45% ~50% 할인
은하보석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4/6부터)

| 기 간 | 신용조합 | 오투기정기예금 | 시중은행 |
|---|---|---|---|
| 30일 | 8 % | | 7.25% |
| 90일 | 8 % | | 7.25% |
| 180일 | 8.5% | 8.25% | 7.75% |
| 365일 | 8.75% | 8.25% | 8.0% |

(한인신용조합)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불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 3539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여행을 즐기십시요

83년도
신세계
구라파 단체관광

| | A일정 | B일정 |
|---|---|---|
| 출 발 | 1983년 7월23일(토) ※동시출발 | |
| 귀 환 | 1983년8월8일(월) | 1983년 8월11일(목) |
| 기 간 | 17일간 | 20일간 |
| 요 금 | $1,850(2인1실) | $1,625(2인1 실) |
| 방문지 | 9개국 : 영국 · 벨기에 · 화란 · 서독 · 오지리 이태리 · 모나코 · 스위스 · 불란서 | |
| 요금에포함된사항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지상및해상교통비 ●세금및봉사료 ●관광지입장료 ●식사(3개도시 제외하고 아침및 저녁식사 제공) | |
| 신 청 | 등록 : 1983년 5월31일 계약금$300불입 마감 : 1983년6월25일 잔액지불(30명 선착순) | |
| 기 타 | 1. 영국행 항공요금의 인하로 관광요금을 재조정하였음. 2. 한국인 안내자 동반 3. 동일한 관광일정이지만 호텔 · 식사및 관광내용의 질에 요금차이 발생. 4. 4년째실시하는 경험을 토대로 가장 추억에 남을만한 일정만을 선택함. 5. 캐나다일시방문자의 참가를 환영(비자및 재입국관계협조) | |

IATA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김 창 범
R) 492-7525

「신세계」는 여러분의 여행을
가장 추억에 남도록 도와드리겠읍니다.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 인디안 민속무용단 방한

## 5월5일 어린이대공원서 공연

(에드몬톤지국)에드몬톤의 Winslow Holding Ltd.(대표 전덕기)가 푸로모터가 되고, 서울 한국일보사가 후원하는 인디안 민속무용단 공연이 오는 5월5일 「어린이 날」에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막을 올린다.

전사장은 이번 공연은 "한국에 인디언 소개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을 고려, 북미 캐나다 인디언들의 문화, 의상, 춤, 예술등을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사장은 또한 어린이 대공원 공연외에도 대학과 학술단체등에서의 세미나 개최등도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82년11월 한국일보, KBS, MBC등에 인디언공연을 제기하여 금년초 한국일보사 김중기사업국장에게서 연락이 오면서 서울공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 인디언무용단은 서울공연을 서두로 부산, 광주공연을 마친후 한국일보사 후원으로 일본과 홍콩공연도 갖을 예정이다.

처음으로 아시아공연을 준비하는 인디언민속무용단은 이번 한국공연이 성공하면 내년에는 유럽공연도 추진해 보겠다고 의욕에 차있다.

현재 부사장인 이종배씨(에드몬톤 12대 한인회장)와 함께 Winslow Holding Ltd.를 설립한 전씨는, 알바타주 Hobbema지역의 인디언과 접촉, 서울공연단을 주선하게 되었다.

전씨는 태권도 도장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공연을 갖게된 인디안민속무용단. 오른쪽 끝은 유인형 한국일보 에드몬톤지국장.

## 교민가게에 강도

### 현금빼앗아 달아나

에그링톤·에비뉴·이스트 2404번지에 위치한 교포 장학진(35)씨가 경영하는 D.J 버라이어티 스토어에 15일오후 괴한이 들어와 금품을 빼앗아 도망갔다.

메트로·토론토경찰보고에 따르면 이날 하오4시40분경 괴한이 카운터에 접근, 무기를 가졌음을 시사하면서 현금을 달라는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장씨가 이에 응하여 현금을 전해주자 골목길을 걸어서 북쪽으로 도망쳤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에 앞서 14일저녁 6시부터 7시사이에 파라먼트·스트릿 318번지에 위치한 김해옥씨 주택2층에 도둑이 들어와 보석등 7,800달러 상당의 물품을 털어 달아났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 건강상태 양호

###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생아

(키치너)쓰레기통에 유기되었다가 지나가던 산책자에게 극적으로 발견되어 생명을 건졌던 신생아(본보 19일자참조)가 캠브리지·메모리알 병원에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산모로 추측되는 한 여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병원당국이 밝혔다.

이 여인은 아기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많았으며 경찰도 산모로 간주하고 수배에 나섰다고 말했다.

마이클(Michael)로 명명되어진 이 아기는 현재 6파운드 7온스의 양호한 건강상태로 간호원들의 양육을 받고 있다.

한편 워털루지역 가정 및 아동봉사실의 책임자 피터·링그로즈씨는 이미 이 아기의 양육을 원한다는 여러 부부의 요청이 쇄도했다고 밝혔다.

## "양심에 따라 처리해야"

### 성인잡지관련 이글튼시장 호소

아트·이글톤 토론토시장은 18일 성인잡지판매 규제법의 실시가 당분간 보류되었다 하더라도 메트로·토론토의 소매상들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 성인잡지들을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진열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트로의회는 12일 성인잡지판매규제법을 당분간 보류시켜 보다 효과적인 실시방안을 검토하자는 이글톤시장의 주장을 21대 17로 통과시켰다.

지난 3월13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성인잡지에 어린이들의 접근을 막기위해 높이 1.5m 이상의 진열대에 제목이외의 부분을 불투명 물체로 가려 진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결혼축하

◉신랑: 이선규군(이한순여사 3남)
◉신부: 김지현양(김성규씨 장녀)
◉때: 5월7일(토) 하오3시
◉곳: 한인천주교회(83 Power St.)
◉주례: 김병운 신부
◉피로연: Boy on a Dolphin 레스토랑 1911 Eglinton Av. E.

# 社說 문화사에 한페이지

## —미스코리아대회에 부쳐—

대형 행사로 봄을 수놓은 토론토 한인사회는 오는 23일 또하나의 문화적 업적을 쌓는다.

제8회 캐나다미인선발대회가 그것이다.

연례행사이긴 하지만 이것은 캐나다 전국의 교민사회가 관심갖는 전국적 행사이며, 1세가 2세를 주인공으로해서 펼치는 사업이며, 세상만인이 다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미의 제전이라는 점에서 평가를 새롭게 한다. 더군다나 대회가 모국과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문화행사와도 특이하다. 즉 캐나다 교민사회를 대표한 미녀는 모국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 모국미녀와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온 교포미녀들과 아름다움을 겨룬다는 점에서 비중을 더하는 것이다.

대망의 80년대를 맞는 81년 여름, 고국서는 미스코리아 대회에 이어 전세계적인 미스유니버스대회가 열렸음은 아직도 우리 뇌리에 생생하다.

79년 박대통령 피살, 그후의 정치혼란, 광주사태등 불행한 사건의 연속으로 국내외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었던 고국은 유니버스대회로 세계의 각광을 받았다. 아름답고 화려한 유니버스대회는 고국의 이미지 쇄신에 크게 기여했다. 숱한 돈을 써가며 수십명의 외교사절을 외국에 보냈던들 그만한 업적을 낼 수가 있었을까?

우리 캐나다미인대회는 고국에 대표를 보낼뿐 아니라 오는 6월 토론토서 열리는 미스·캐라반대회에 한민족 대표를 참가시키는 일도 겸한다. 토론토 소재 각 이민족이 펼치는 캐라반제전에서 우리 자녀가 미스·캐라반으로 뽑혔다고 상상할 때 이곳 사람들이 한국여성 내지는 한국인에 대해 가졌던 인식이 다소 변화할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미스코리아가 미스·캐라반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므로 조만간 우리는 이같은 영광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아름다운 외모에 교양갖춘 미녀들이 이땅에서 할 일은 많다.

우리는 과거 미인대회 입상자들을 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망각, 이들을 한인사회에 적극 참여시키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즉 「미」라는 재산의 소유자에게 이에 합당한 대우를 못해 주었고 좋은 의미에서 말해 미를 선용하지도 못했다.

대회 당일로만 그치는 미인을 우리는 요구치 않는다. 우리는 뽑히는 미녀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한인사회와 밀접한 유대를 유지해 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기위해 주최자는 물론 교민단체, 업체의 이해와 협조가 요청되는 것이다.

금년 미인대회는 토론토 한국일보사가 처음으로 인수, 주최하는 점에서도 특기할 만하다.

주최자는 대회의 범교민성을 위해 과거 경험자 중심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가 심사위원을 선정,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조치했다. 위원회는 캐네디안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물심양면 지원으로 후보미녀들에게 손색없는 부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회가 품위있고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배려했다.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수십명의 합작으로 이뤄지는 금년도 미인대회가 소기의 성공을 거두도록 교민사회의 성원을 바란다.

## 第5의 사나이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 헤로인 <215>

金聖鍾作 ⑩

朴男 그림

『분명히 모세와 함께 둘이서 시골에 내려갔었나?』

『네, 그랬어요. 모세가 어머니에게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갔어요.』

『몇번 갔었지?』

『서너번 갔어요.』

『당신은 중국 여자인가?』

『네, 그래요.』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어깨의 상처를 내려다 보았다.

『살려주세요. 피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정도로는 죽지 않으니까 안심해.』

『살려주십시요. 뭐든지 시키는대로 하겠읍니다.』

일인이 다시 그에게 애걸했다.

캡의 사나이는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당신은 누구요?』

『……』

그러나 사나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트라이앵글인가?』

사나이는 대답대신 고개를 저었다.

『그럼 뭐요?』

『난 고용된 몸이야.』

『그럼 우리 협상합시다.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루트를 내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는 싫어. 물건은 나 혼자서도 처분할 수있어.』

그는 다시 여자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여자는 완전히 시트를 걷어치우고 하염없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가 한쪽 젖가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사랑하진 않았어요 같은 조직원이었죠"**

『모세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나?』

『진달이에요.』

『그 이름은 가짜야.』

『가짜가 아니에요. 그는 자기과거를 나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는 처음에는 왕씨였는데 고아가 되자 진씨 집안에 양자로 들어갔대요.』

『그에게 형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나?』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들어서 형이 한사람 있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는 형을 몹시 만나고 싶어했어요.』

그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침묵이 흘렀다.

잠시후 그는 괴로운듯 물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나?』

『냉혈한이었어요. 그는 피가 통하지 않은 인간이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인간을 사랑했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는 같은 조직원이고 필요했기때문에 서로 가까이 했을 뿐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해서 죽였지? 그리고 누가 죽였지?』

『그는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녀는 고통스러운지 얼굴을 잔뜩 찡그렸다.

## 카렌·케인양 약혼반지 찾아

### 택시운전사 신고, 현상금 1,000달러 받아

토론토의 한 택시운전사가 발레리나 카렌·케인(Karen Kain)양의 약혼반지를 찾아주어 현상금 $1,000을 받게됐다.

케인양은 13일 자신의 약혼반지를 잃고 이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걸었다.

이날 그녀는 미용원에서 지갑에 넣은 반지가 Yorkville쇼핑센타에서 쇼핑후 분실된 것을 발견했다.

운전사인 이니오 카스트라케인(Ennio Castracano)씨는 이날밤 뒷자석에서 반지를 발견했고 신고하려는 찰라 Sun지를 읽고 이 반지가 케인양의 것인줄로 알았다고 말했다.

5월29일로 예정된 그들의 결혼에 앞서 반지 분실로 2일간 상심했었다고 카렌양의 약혼자인 로스·페티(Ross Petty)씨는 말했다.

1.25캐럿의 다이아반지는 6개의 작은 다이어먼드로 둘러쳐있는 반지였다.

## 국립발레단 봄철공연

### 5월4일 개막, 장소 오·킵·센타

캐나다 국립발레단(National Ballet of Canada)의 봄철공연시즌이 오·킵·센터에서 오는 5월4일 개막된다.

〈백조의 호수〉, 〈스핑크스〉, 〈돈·쥬안〉, 〈나타라자〉, 〈나폴리〉등 5개 레파토리가 공연될 봄철공연 티켓은 지난 9일부터 공연장소인 오·킵센터에서 판매중이다.

공연작품중 희랍신화에 바탕을 둔 〈스핑크스〉는 글렌·테틀리씨의 안무로 캐나다 초연이며 〈백조의 호수〉는 차이콥스키의 음악에 〈에릭·브룬〉씨가 안무한 발레의 고전작품이다.

주역 발레리나로는 캐런·케인, 프랭크 오거스틴, 하웃, 테난트등이 활약할 예정이며 요금은 $5.00에서 $25.00까지이다.

오·킵센터의 주소는 1 Front St.이며 티켓문의는 전화 365-9744.

◆발레리나 카렌·카인양의 약혼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주어 현상금 $1,000을 받게된 택시운전사 카스트라케노씨(가운데)와 약혼자.


# 성전건축바자회

품 목
★점 심
★주 식 료
★떡 종 류
★선 물 용 품
★의 류
★카셋테이프
★생활필수품
★조 미 료, 밑반찬
★김치, 고추장, 된장
★경 품
★화초류의 성도의 출품

때 : 1983년 4 월23일(토) 오전9시~오후7시
곳 : 502 Bathurst St. (at College)
THE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토론토 중앙교회

주제 · 예수를 바라보자 !
(히브리서 12 : 2)

# '83 세계복음운동 토론토 집회

ㅁ강사 김선운목사
•서울대학교 졸업
•미 Westminister 신학교 졸업
•미 템플대학원 철학박사 취득 동대학 교수 역임
•현 북부 필라한인교회 담임
•세계 복음 운동회장

ㅁ주최 세계복음운동토론토지회
(270-3092, 626-5382)

ㅁ시일 1983년4월21일-24일
목.금.토.일- 저녁7시30분
4월23일(토)오전 11시
청소년영어성경강좌
THE CHRISTIAN FACE & PERSONAL IDENTITY

ㅁ장소 벧엘교회(395 Old Yonge St.)

# 토론토출신 바셋양 분패

## 미국여자 테니스협회 참피온전서 에버트에

(아메리카 아일랜드, 플로리다)토론토 출신의 15세된 칼링·바셋(Curling Busett)양은 17일 이곳에서 열린 미국여자테니스협회 챔피온전에서 강호 크리스·에버트양과 접전, 결국 세트스코어 2:1로 분패했다.

이번 챔피온전의 최연소선수로 출전한 바셋양은 1세트에서는 6:3으로 패했으나 2세트에서는 2:6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3세트에서는 타이브레이크까지 끌고 가는 저력을 보였으나 아깝게 실점하고 말았다.

바셋양은 현재 세계 34위에 기록되고 있으나, 이날의 1세트 승리는 크리스 에버트선수로서는 본대회에서 5년만에 처음으로 세트패의 기록을 갖게 했다.

2시간18분의 격전을 벌인 후 바셋양은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승리한 에버트선수는 "나는 시종 불안하고 쫓기는 경기를 했으며 그녀는 진것이 아니라"고 격찬했다.

이 경기로 바셋양은 $16,000의 상금을 받았다.

바셋양은 현재 플로리다에서 통신과정으로 고교과정을 이수함과 동시에 전문테니스교육을 받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 바셋씨는 현재 USFL의 탐파베이 밴딧(Tampa Bay Bandits)의 구단주이다.

◆강호 크리스·에버트양에게 2:1로 석패했으나, 1세트를 뺏어 놀라게 한 토론토출신의 칼링·바셋(15세)양.

# 새이사장에 이종현씨

## 천주교 신용조합

토론토 한인천주교신용조합(일명 한맘신용조합)은 지난 3월27일 이사회에서 조합장및 이사장으로 이종현(보험회사 근무)이사를, 부조합장에는 장추국(실업인)씨를 선출했다.

지금까지의 조합장은 김홍량씨(임페리알·라이프 보험인)였다.

이 신용조합은 또 3년 임기의 이사로 김홍량·김지일·장추국씨를 재선 또는 보충하고, 여신위원으로 허대통씨, 감사에 한용식씨를 재임시켰다.

회원수 876명, 예금총액 180만달러, 대출액 119만달러의 실적을 가진 토론토한인천주교회 신용조합은 5천달러 이내의 신용대출, 적금, 자동차구입비 대부, 저금및 인출등의 금융기관 업무를 해왔다.

지난 4월4일 현재 예금이자율은 9%, 대부이자율은 12%로서 "어느 금융기관보다 고객에 유리하다"고 조합측은 강조했다.

### 교 민 동 정

◆김성규=1남2녀중 장녀 지현양을 오는 7일 출가시킨다. 사위는 토론토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사이언스를 전공중인 이선규군, 이군과 김양은 작년가을 약혼했다.

작년에 둘째딸을 먼저 시집보낸 김씨는 이로써 슬하에 막내아들 종완군을 두고 있다.

### 미술스튜디오 30일 오픈

아동들의 미술교육 향상과 정서개발및 일반의 취미함양을 위한 엔젤미술스튜디오(Angel Fine Art Studio)가 개설된다.

오는 30일(토)에 문을 열 스튜디오는 2428 Islington Ave.의 Elmhurst 플라자 2층 7A에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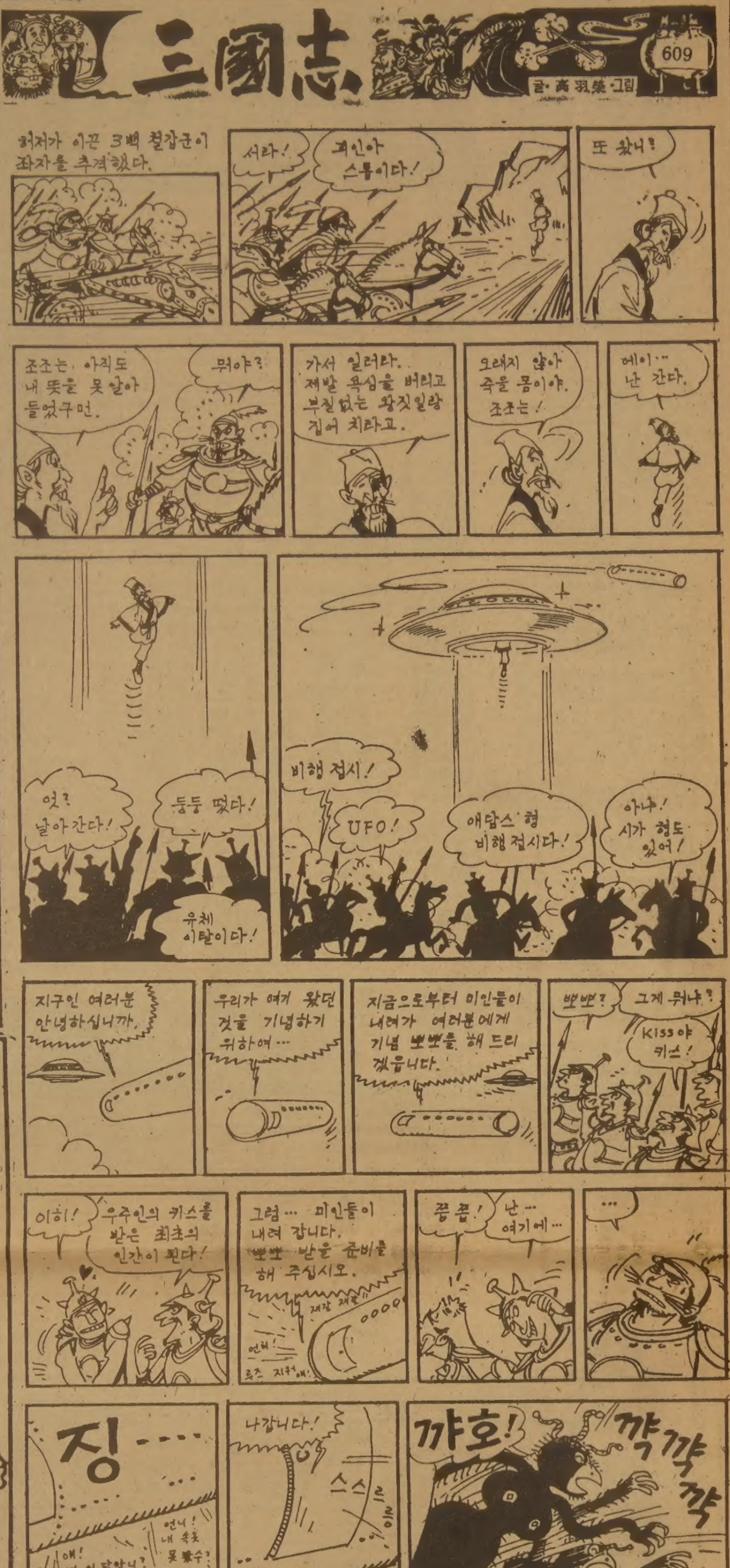
스튜디오를 오픈한 조혜미씨는 온타리오아트칼레지(OCA)와, 죠지브라운칼레지 그래픽·디자인과를 수료했으며, 수차에 걸쳐 개인전을 가진바 있다.

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하는 오픈 리셉션을 4월 22일(금) 오후5시에 가질 예정이다.

연락전화는 745-8236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532-7909
549 BLOOR ST



상업건물및 주택 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964-6834(B)
226-0375(R)
643 Yonge St (3rd fl)
대화개발주식회사
Daewha Developments Limited
General Contractor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연재소설〉

# 혼돈 ⑤

글·이태준 그림·최미경

## 제1편 출 국

나는 통금해제 싸이렌 소리와 함께 집을 나왔다.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둑어둑한 새벽길을 터벅터벅 걸으며 궁리를 해도 갈만한 곳도, 살아갈 방법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될 수 있으면 속히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었다. 가능하다면 어머니도 찾아올 수 없는 멀고 먼 곳으로 영영 떠나고 싶었다. 목적도 없이 버스정류장까지 걸어나온 나는 경유지도 종점도 확인하지 않고, 맨먼저 온 버스에 올라탔다. 고등학교 3학년생 몇명과 아주머니 한분이 띄엄띄엄 앉아서 유리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버스안은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으나 기름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어쩌면 한결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허둥대며 공장에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 졸린 눈으로 배를 채우고 쓰러져 잠을 자던 생활이 한순간에 이렇게도 많이 변할 수 있을까? 저 학생들과 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기에 나는 하룻밤 사이에 집도 처녀도 직장도 잃고, 갈 곳도 없이 여기 앉아있어야 하며, 나와 비슷한 나이의 저 학생들은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가오는 미래의 포부에 젖어 있어야 하나?

나라는 씨를 어머니의 몸속에 뿌려놓고, 아버지의 의무를 팽개쳐 버린 친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기가 뿌린 씨앗의 새싹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까?

나의 가슴은 원망과 분노로 차오르고 있었다.

나를 짓밟은 의붓아버지보다도 나를 태어나게 해서 짓밟히게 한 친아버지가 더욱 미웠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찾아 복수하리라.

가혹한 복수를 하리라.

아버지뿐 아니라, 또다른 나와 같은 운명의 생명을 탄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남성에게 가혹한 복수를 하리라!"

끓어오르는 울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턱대고 버스에서 내렸다.

(여기가 어딘가?)

아직 어둠이 가물거리고, 방향감각이 전혀 없는 나는 한참만에야 내가 내린곳이 용산역앞이라는 것을 알았다. 울분을 참지 못해 버스에서 내리기는 내렸으나 다음 행동이 이어지지 않았다.

몇번 주위를 둘러보다 갈 곳도 할것도 없는 나는 난감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동녘에서는 여명이 밝아오고, 샛별은 점점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죽음을 생각하며 계속 풀리지 않는 의문을 자신에게 던지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다.

「아가씨,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달에 5만원씩 주는 직장이 있는데…」

귀가 솔깃한 소리였다.

「어딘데요?」

「따라올려우?」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다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지금의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5만원씩이나 준다는데, 나는 아주머니를 따라가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자주 주위를 살피며 바삐 걸었다

「정신 바싹 차리고 따라오슈. 나를 놓치면 그만이니께.」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하며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나는 바싹 그녀를 따라붙으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

(어디서 무엇하는 직장인데 새벽부터 사람을 구하러 다니나. 나같은 사람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5만원이나 주다니, 왜 자꾸 골목길로만 갈까? 혹시 나를 팔아먹기 위해 사창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닐까? 이대로 도망가 버릴까?)

의심을 하면서도 그녀를 계속 따라갔다. 설마하니 신문에나 나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는가하고 불길한 생각을 지우며 그녀를 따라갔다.

(계속)

남성에게 가혹한 복수를 하리라…

TRUST CLEANERS

인사말씀

금번 제가 블로어상가에 세탁소를 새로이 열고 교민여러분을 모시고 약소하나마 개업식을 갖고자 하오니 많이 왕림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정서 드림

◆개업식
1983년 4월20일(수)
오후7시
◆개업일
1983년 4월21일(목)
◆드라이크리닝등 각종세탁
◆각종수선
◆주소 : 704 BLOOR ST. W
☎532-6218

공 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귀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비오며,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 하시기를 빕니다.

금번 무역인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 제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3년 4월28일(목) 오후7시
◎장 소 : 크링톤하우스 693 BLOOR ST. W
◎연락처 : 535-3305
◎안 건 : 경과보고 사업계획 결산보고 예산심의 임원선출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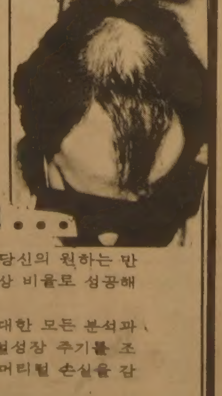
재카나다 무역인협회

IATA
세방여행사
업무안내
⊙한국·미국·캐나다·유럽등 항공권판매
⊙스키, 플로리다, 유럽등 관광패케지
⊙방문초청, 수속, 번역등 서류작성
⊙캐나다, 미국 각종대학 유학상담
⊙호텔, 렌트카예약및 기차표판매

Sebang Travel Service Ltd.
720 Spadina Ave.Suite 104
Toronto, ONT. M5S 2T9
유승민
(416)928-3335
(R) 532-9581
△몬트리올(정관성)514-672-8399
△위니펙(이영호)204-667-8129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새로 머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십시요。



YES IT'S TRUE . . .

우리 전문가들은 당신의 원하는 만족한 결과의 85%이상 비율로 성공해 왔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머리털에 대한 모든 분석과 최신시설로써 머리털성장 주기를 조사함으로써 당신의 머리털 손실을 감소해 드립니다.

우리훈련된 전문가는 머리털의 근본문제를 해결합니다.

머리털이 빠지는 원인을 찾아 자신을 갖고 치료합니다.

고민 있으신분, 당장 연락바랍니다.

You're only your hair to Gain!

◉미리 약속시간을 정하십시요.
▲매일(월~금) : 오전11시~오후8시
▲ ( 토 ) : 오전9시~오후3시

'HAIR RESEARCH CENTRE'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 종교계소식

## 40교회가 불법입국자 보호
### 미국 난민법 불공평하다고 도전

미국내 40여개 이상의 교회가 전란을 피해 미국으로 불법입국한 중남미의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수백개의 교회들이 이들 난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교회지도자들은 정치적 망명이 거부된 엘살바돌인과 과테말라인들에게 이들이 가족과 결합,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임시숙소를 제공할 것이라 밝히고 80년에 제정된 난민법이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80년에 제정된 난민법은 이들 난민들이 본국에 송환되면 박해를 받게된다는 증명을 법무부장관과 이민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민국관리는 3백만에서 5백만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들을 일일히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밝히고 더구나 이 문제로 교회와 충돌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엘살바돌인과 과테말라인은 30만명에 달하며, 지난 한해동안 이들 가운데 수만명이 정치적망명을 요청했으나 79건만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 이태한목사 취임예배
#### 한인토론토교회

한인토론토교회(2 Nobert Rd, Agincourt 소재)는 오는 24일 오후 3시30분 제2대 목사로 부임하는 이태한 목사의 취임예배를 갖는다.

안상엽목사의 후임으로 취임하는 이목사는 한국에서 성결교 신학대학을 졸업한후 현재 해밀턴소재 맥매스터 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을 이수중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494-5007, 226-9794로 하면된다.

## 전도 간증집회
### 새한교회, 강사 원충연씨

새한교회(담임목사 김상호)는 오는 22일(금)부터 24일(일)까지 매일저녁 7시30분부터 전도간증집회를 갖는다.

이번 모임의 강사는 원충연집사.

원집사는 5.16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을 역임하다 반혁명사건에 관련, 사형선고를 받은후 15년간 복역했던 혁명의 산증인이다.

옥중생활동안 영적인 체험을 통해 복음전파의 사명을 받고 평신도 전도자로서 나서게 된것.

그는 옥중에서 체험한 신앙을 토대로 옥중수기 '이 줄을 잡아라"를 집필, 사형수로서 죽음을 앞두고도 신앙을 통해 평정을 얻고 옥중의 수인들에게 오히려 전도할 수 있었던 생생한 간증을 기록하고 있다.

원집사는 일본중앙대법과, 서울대대학원, 미보병학교, 참모대학, 육본정훈차감, 서독대사관무관등을 역임한 예비역대령으로 5.16혁명주체의 한 사람이었다.

현재는 서울승동교회에서 집사로 시무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416) 482-4577, 665-3132로 하면된다.

## 창립16주년 기념예배
### 24일 토론토한인연합교회

토론토한인연합교회(담임목사 : 이상철)는 24일 오후2시 창립제16주년 기념예배를 갖는다.

이날의 예배는 Clifford Elliott목사의 특별설교가 있으며 예배후 교내적으로 조촐한 생일잔치가 있을 예정.

한편 22일밤 9시부터 다음날 오후5시까지 본교회에서는 이상철목사의 주관하에 "예수그리스도는 세상의 생명이시다"라는 주제로 교인수양회를 갖는다.

또한 동교회 골프클럽에서는 오는 5월14일(토) 오전 11시45분에 클레인버그(Kleinberg)골프클럽에서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의 참가비는 $35이며 신청은 전화 742-0260, 743-7722나 당일 현장에서 하면 된다.

## 성전건축위한 바자회
### 23일 토론토중앙교회

토론토중앙교회(담임목사 정관일)는 오는 23일(토) 오전9시~오후7시까지 새성전건축을 위한 특별 바자회를 갖는다.

이날 바자회에 출품되는 품목은 각종 조미료, 밑반찬, 김치, 고추장, 된장과 생활필수품, 떡종류와 화초류, 선물용품및 카셋테이프등과 당일 점심류를 판매한다.

동교회가 새로 건축할 성전은 2에이커(2,400평)의 대지위에 지상1층, 지하1층의 2층건물로 총 600평의 크기에 700명 수용의 대성전과 300석의 예배석, 냉온방장치, 유아자모예배실, 방음기도실, 10개 이상의 교회학교 교실, 체육관시설등이다.

바자회 장소는 502 Bathurst St.(at College)이다.

한편 동교회는 창립10주년을 기념하는 "중앙십년사"를 편찬했다.

1972,9,10부터 1982,9,12까지의 교회역사와 현황을 담은 이 책자는 총 70여페이지에 각종 사진, 도표, 계획의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어 산역사의 구실을 하고있다.

### 선교대상 확정
#### 벧엘교회

베델교회(담임목사 최상봉)는 금년도 본교회 선교사업 강화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여러곳에 선교지를 확정하고 정기적인 후원을 하기로 결의했다.

결의된 선교대상은 1)성산감리교회 2)천양고아원 3)양양교회 4)반석교회 5)중공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성백회 선교사 6)창곡교회 7)탁명환 교수등이다.

## 잿밥만 먹겠다고 한다면
### 敎界서 요란한 잡음 울리는 것은…

오강남박사(종교학)

염불이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불교 종파들중 정토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종파에서 받드는 한 경전에 의하면 한때 「다르마카라」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부처가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었다. 이 경전의 중국 번역을 보면 그는 48종의 서원을 했는데, 그중 소위 「제18번」이라는 왕서원에서 그는 불쌍한 중생들이 어디서나 지극한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을 모두 이 세상에서 우주 서방에 있는 정토라는 극락세계로 옮겨나게 하고 거기서 궁극의 목표인 성불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정토종에서는 이 청년이 정말로 나중에 그의 소원대로 부처가 되었다고 믿는다. 이 부처의 이름이 「아미타바」 혹은 「아미타유스」다. 무량광(무한한 빛) 혹은 무량수(무한한 생명)라는 것은 이 이름의 한문번역이다.

「나무아미타불」하며 염불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미타바 부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정토에 「왕생」하려는 간절한 기원의 표현이다. 어느 의미로 보아 이것은 믿음의 극치요, 일종의 기도다.

정토사상을 신봉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핵심적 요소인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절간에서 재회때 먹는 잿밥을 얻어먹는데만 마음이 가있으면 아무리 절간엘 열심히 다녀도, 아예 거기서 산다고 해도 참된 의미의 종교와는 상관이 없다. 입으로 염불을 외우고 있더라도 마음은 먹는데 가있기 때문이다. 영적가치가 아니라 물질적, 세상적 가치가 궁극관심사일 뿐이다.

기독교 중에서 희랍정교계통에는 「예수기도」라는 것이 있다.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한 무명의 순례자가 쉬지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고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하는 기도를 하루에도 만이천번 정도 반복하므로 깊은 종교적 체험의 경지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편의상 기독교의 핵심을 「예수를 믿는것」이라 한다면 우리가 물어볼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는 마음이 없고 예수를 팔아먹는데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질문이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너희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했다.

제자들이 모두 근심하는 목소리로 「주여 내니이까」하는 질문을 했다. 레오날드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은 이 순간을 잡은 것이라 하는것 같다.

물론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지적하는 「너희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

### 염불외며 마음딴데 가있으면 허사
### 예수 팔아먹은자 가룟유다 뿐일까

고 하는 것을 잘 알고있다. 그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볼때마다 식탁 끝자리에서 돈주머니를 잡고 있는 가룟 유다를 찾아내고 그가 바로 「예수를 팔아먹은 자」임을 확인하고 그를 정죄한다. 그리고는 내가 예수를 팔아먹은 자가 아님으로 인해 안심한다. 「주여 신자되기 원합니다. 참맘으로 … 유다처럼 안되기를 원합니다.」하는 노래도 힘차게 부른다.

신학적, 역사적 논의와 상관없이 「예수를 팔아먹는다」는 것이 「예수 덕으로 자기 욕심을 차리겠다는 마음을 품은 것」쯤으로 이해할수 있다면, 과연 예수를 팔아먹는 자는 가룟 유다뿐일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게 된다.

우리는 예수를 팔아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려 하지 않는가? 예수를 팔아 목사라는 직업을 따내려 하지 않는가? 예수를 팔아 장로직이나 집사직으로 우그러진 에고를 충족시키려 하지 않는가? 예수 덕으로 사업의 번영을 꾀하려 하지 않는가? 예수의 이름을 팔아 병자를 고쳐준다고 하며 뭔가 받아내려 하지 않는가? 성가를 부르고 성화를 그려 팔아 없는 이름을 새로이 날리려 하거나 떨어진 인기를 다시 끌어올리려 하지 않는가?

불교종단에서, 교회에서 그렇게도 요란한 잡음이 울려퍼지는 것은 잿밥만 가지고 서로 많이 먹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거나 예수를 팔아먹는데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도 이제 「주여 내니이까?」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던져봐야할 것같다. 그리고 종교 본연의 목적에 마음을 두도록 해야겠다.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 액자및 성화
714 BLOOR ST. W. ☎535-1920

# 교회안내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 종교서적 · 성가집 · 액자및 성화
549 BLOOR ST. W. ☎532-7909

| 교회명 | 담임목사 | 예배시간 | 주소 | 전화 |
|---|---|---|---|---|
| ●감리교회 (Methodist Church) | | | | |
| 웨슬레감리 | 여웅순 | 주일오전 11:00 금요저녁 8:00 | 2385 Warden Ave, Scarboro, M1W 2L8 | 444-8343 |
| 토론토한인감리 | 박춘하 | 주일 오후1시 성경공부 수요일 7시30분 오후2시 장년예배 학생부 영어예배 |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M2N 2N1 | 498-7960 |
|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잠언 22:6 | | | | |
| ●독립교회 (Independent Church) | | | | |
| 대한 | 조남유 | 주일오후 2:00 | 3819 Bloor St. W. Islington M9B 1K7 | 621-6340 |
| 메시아한인 | 조창환 |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 1580 McCowan Rd, Scarboro, M1P 3J1 | 298-1876 |
| 벧엘 | 최상봉 | 주일오후 1:00 수요저녁 6:30 | 395 Old Yonge St. M2P 1R6 | 496-2967 |
| 성령 | 김관선 |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 379 Kenneth Av. Willowdale M2N 4V9 | 275-4650 |
| 스카보로 | 김희섭 | 주일오후 1:30 | 115 Ionview Rd. Scarboro, M1K 3A1 | 752-3582 |
| 토론토교회 | 안상엽 | 예배시간 주일오후 1:00 | 2 Nobert Rd, Agincourt M1T 1C1 | 494-5007 226-9794 |
|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 | | | |
| ●순복음교회 (Full Gospel Church) | | | | |
| 순복음카나다 | 조이식 |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 1030 Albion Rd. Rexdale M9V 1A7 | 745-3884 743-4813 |
| 순복음토론토 | 이필주 | 주일오후 20:00 금요기도 8:00 | 1 King St, Weston Weston M9N 1K8 | 881-7162 247-9577 |
| 순복음몬트리얼 | 이은종 | 주일오후 2:00 수요오후 8:00 | 5275 Earnes Cliffe Ave, Montreal H3G 2H8 | (514)933-0308 486-6600 |
| ●성결교회 (Holy Church) | | | | |
| 베다니•성결 | 김요한 |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3:00 | 2799 Weston Rd. Weston M9M 2R8 | 248-9709 248-1653 |
| ●연합교회 (United Church) | | | | |
| 미시사가연합 | 유환진 | 주일대예배 오후 2시 | 2500 Mimosa Row, Mississ. L5B 1P7 | 276-5163 277-2394 |
| 중앙한인연합 | 김택규 | 주일오후 12:30 수요일저녁 7:30 | 353 Sherbourne St, Toronto M5A 2S3 (복음다이알) | 922-3863 922-0605 |
| 임마누엘 | | 주일오후 2:00 | 63 Dunblaine Toronto M5M 2S2 | 488-4141 |
| 토론토한인연합 | 이상철 | 주일오후 성경공부 1:00 예배 2:00 | 300 Bloor St, W. Toronto M5S 1W3 | 925-6261 |
| 한인연합 | 반병섭 | 주일예배 오후 2:00 | 69 William St. Weston M9N 2G6 | 243-9543 743-8082(R) |
| 해밀톤연합 | 김낙중 |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3:00 | 1570 Main W. Hamilton L8S 1E8 | 626-4329 |
|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 | | | |
| 가나안 | 이정춘 | 주일오후 1:30 |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e, W.) Weston M9P 3A8 | 742-7010 |
| 갈보리장로 | 안병한 | 주일오전7:30, 오후2시, 5:00 금요성경 8:00 | 3817 Lawrence Ave, E. Scarboro, M1G 1R2 | 755-7979 |
| 동부장로 | 홍순관 | 주일오전 11:30 영어 10:30 | 40 Yarmouth Rd. Toronto M6G 1W8 | 530-1142 |
| 딕시장로 | 차주섭 |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30 주일 12:00 주일오후 2:00 | 3065 Cawthra Rd. Mississ. L5A 2X4 | 279-4356 279-6388 |
| 반석 | |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7:00 | 2840 Weston Rd. Weston M9M 2S3 | 746-5010 |
| 빌라델비아 | 김경진 |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 7 Gretna Ave. Toronto M4A 2H5 | 281-5706 |
| 새한장로 | 김상호 | 주일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 7:00 수요저녁 7:30 성경공부 | 105 Wilson Ave. Toronto M5M 2Z9 | 482-4577 |
| 선교 | 김요석 | 주일오후 1:00 | 1 Greenland Rd. Don Mills M3C 1N1 | 444-8002 |

| 교회명 | 담임목사 | 예배시간 | 주소 | 전화 |
|---|---|---|---|---|
| 성도 | 김용진 | 주일오후 1:30 | 87 Elmhurst Dr. Rexdale M9W 2J8 | 745-7370 |
| 성산 | 제화삼 |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7:30 | 1239 Jane St. Downsview M3L 1E7 | 248-4130 233-2266 |
| 토론토소망 | 서인구 김옥희 | 주일오후 2:00 수요 밤 7:30 금요철야 밤 12:00 | 35 Kecala Rd. M1P 1K7 (Lawrence & Kennedy) Scar. | 752-9727 752-9860 |
| 시민 | 조성관 | 주일오후 2:00, 4:30 금요기도 밤 9:00 새벽기도 5:30 | 662 Pape Ave. Toronto M4K 3S5 | 266-4918 |
| 영락 | 김재광 |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 10:30 | 126 O'Connor Dr. Toronto M4J 2S4 복음다이알 | 423-9880 423-8400 |
| 오순절장로 | 장세택 | 주일오전 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 754 Indian Rd. Toronto M6P 2E3 | 762-1495 |
| 은성장로 | 장은덕 | 주일오후 2:00 | 8 Amroth Ave. M4C 4H2 (at Danforth & Woodbine) Tor. | 691-9691 266-8820(R) |
| 제일장로 | 김용출 | 주일오전 11:30-대예배 금요 오후 8:00 TV예배 오전8:30-9:00 CH79(매월 4째주일) | 68 Collinson Blvd, Downsview, M3H 3C3 (생명의 전화) | 755-9766 636-1724 |
| 충현 | 박경남 | 주일오후 1:00-1부 2:00-2부 수요집회 밤 8:00 | 240 Manor Rd. Toronto M4S 1S1 | 438-0695 446-1211(R) |
| 토론토한인장로 | 박희민 | 주일오전 11:00 수요오후 7:30 TV예배 8:30~9:00 AM CH79 | 1183 Davenport Rd Toronto M6H 2G7 | 535-6864 532-2121 |
| 한인중앙장로 | 정관일 |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 502 Bathurst St. Toronto M5S 2P9 | 245-4980 622-5827 (전화설교) |
| 런던제일장로 | | 주일오전 11:30 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 135 Briscoe St. E. London N6C 1X4 | (519)439-6331 |
| 런던한인장로 | 신용규 |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 1:00 | 530 Topping Lane London N6J 3M7 | 686-0224 473-5257 |
| 매니토바한인장로 | 이영선 | 주일오후 1:30 금요성경공부 8:00 토요청년성경공부 7:00 주일학교오후 12:30 | 240 Home St, Winnipeg, Man, R3G 1X3 | (204) 783-5881 (204) 667-7150 |
| 에드몬톤장로 | 서출선 | 주일오후 1:30, 5:0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8:30 | 11112-109 Ave, Edmonton Alberta, T5H 1E1 | (403)423-5325 463-2075 |
| 키치너•워터루한인 | 정동석 |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 388 Ottawa St, S. Kitchener N2M 3P4 | (519)579-0954 |
|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시편 100 : 1~2〉 | | | | |
| ●침례교회 (Baptist Church) | | | | |
| 에덴침례 | 정태진 |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 1272 Weston Rd. Toronto M6M 4R1 | 242-4964 665-2866 |
| 한인침례 | 홍신웅 |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 720 Ossington Av. Toronto M6G 3T6 | 531-7604 |
| ●펜티코스탈교회 (Pentecostal Assemblies) | | | | |
| 새예루살렘 | 김승환 | 주일오후 2:00 수요새벽 5:30 중고등영어 오후 1:00 금요저녁 7:30 | 5 Grenoble Dr. Don Mills M3C 1C3 | 429-1430 429-2685 |
| 한인연합펜티코스탈 | 안한현 | 주일오후 1:00 -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 대예배 | 300 Queen's Dr. Toronto M6L 1M5 | 223-1914 |
| ●천주교회 | | | | |
| 토론토한인천주 | 최규식 |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 439 Dundas St, E. Toronto M5A 2B1 | 863-0415 |
| ●안식일교회 | | | | |
| 제7일안식일 | 박형종 |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 255 Finch Ave, W. Willowdale M2R 1M8 | 630-4284 |
| ●기도원 | | | | |
| 오순절기도원 | | | | |
| 토론토기도원 | | | | |
| 협신기도원 | 이광욱 | | 75 Emmett Ave, #1005, Toronto M6M 5A7 | 245-1687 |
| 대한수도원 | 조권사 | 철야기도 금 밤 11:00 평일기도 오후 2:00 토요집회 오후 2:00 또는 수시 | 100 Lawlor Ave. Toronto M4E 3L7 | 698-5363 |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 『네 믿은대로 될찌어다』(마태복음 8:13)

# 地自制·추가解禁 촉구

## "改革立法 改廢할 용의는" 질문
## "행정區域 개편작업 준비" 답변

### 國會본회의 어제 質問·答辯

국회는 15일 하오 본회의를 열고 金相浹국무총리등 관계장관들을 상대로 정치 외교 안보에 관한 對政府질문을 벌였다.

이날 鄭男의원(民正)은『정부는 1차정치被규제자의 解禁조치이후의 政局의 추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통령에게 被규제자의 追加解禁을 건의할 생각이 없는가』고 물었다.

그는 이어▲정부는 地自制실시에 대비, 어느정도의 연구와 준비를 하고있으며 또 언제쯤 실시할수있다고 보는가、▲행정구역개편계획을밝힐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申鎭浹의원(民韓)은『항간에는 88올림픽과관련지어 改憲說이 적지않게 흘러나오고 3월16일字 뉴욕·타임즈紙등 일부 外信에까지 보도되고있다』고 지적、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金根祖씨치사 사건등 人權침해사건의 증가대책▲재정축소를 위해 平統자문회의등을 폐지、지방의회의 구성으로 財源을 돌릴것등을 요구했다.

金完泰의원(국민)은『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소위改革立法은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그適法性과 당위성을 검토、改正작업을 시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財閥의 토지再買入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한편 재벌의 土地投機를 拔本塞源할 용의는 없는가』고 따졌다.

金顯熺의원(民正)은▲對蘇·對中共·對北韓관계로 구성된 北方外交의 돌파구를찾기위한 외교적방안은 무엇인가▲太平洋정상회담구상을실현시키기위한 구상▲식량의 무기화에 대비하여「식량의 戰略的비축제도」를 太平洋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을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金相浹국무총리는 답변에서『지방자치제는 헌법의 규정에따라 順次的으로 실시되어야하며 지방재정자립도의 제고를비롯한 자치기반조성이 중요하기때문에 여건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정부에서는地自制를 실시할경우▲지방자치단체의종류▲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중앙과 지방의권한·기능배분▲지방재정의 재원배분문제등을먼저 연구토록되어있고 연구가끝나면 되도록빨리 국회에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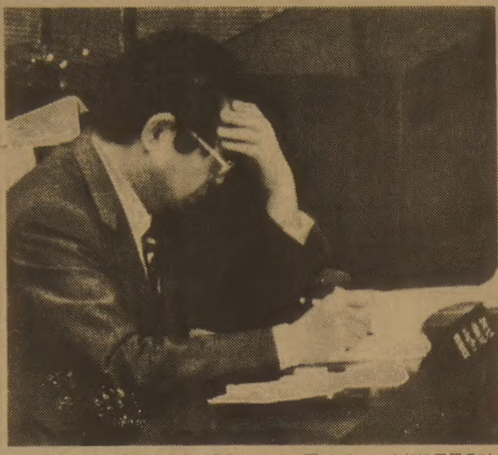
그는 특히 항간에 나도는 改憲說에대해『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정치被규제자 解禁문제에 대해『解禁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사항이지만 나머지 대상자도 여건이 조성되면 해금될것으로 기대하며 나도 미력이나마 一助를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金총리는 수사중의 致死사건에대해『국민들에게 죄송하게여기며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심기일전하여 공정하고 明明한 행정이 이뤄지도록하겠다』고 말했다.

盧泰愚내무장관은 답변을 통해『폭력수사를 근절키위해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관련자를조사하는것을 엄금하고 가혹행위를한 수사요원을 가차없이 처벌하며 선증거수집후 연행의 수사원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전경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盧장관은 또 수사경찰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6개월코스의 수사전문화과정을 신설하며 적성검사와 소양시험을통해 부적격자를 정리하겠다고 말하고『치안본부의특수수사대와 수사대의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재조정해 국민의오해를 씻도록 하겠으며 가혹행위를당한 사람이 호소할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답변구상하는 金총리 金相浹국무총리가 15일하오 국회에서 쏟아지는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골똘히 구상하고있다.

# 핀란드、北韓大使추방

## IPU 서울總會방해 정치인買收공작

【헬싱키AP UPI=聯合】핀란드정부는 14일밤 헬싱키주재 北韓대사 유재한이 국제의회연맹(IPU) 83년총회의 서울개최를 방해하기위해 핀란드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려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를 기피인물로 선언, 추방령을 내렸다.

핀란드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발표,『유가 핀란드의 법률과 외교관처신에 관한 빈협정을 위반한것으로 밝혀져 기피인물로 선언됐다』고 설명하고 유가 가능한한 조속히 출국하도록 통고했다고 말했다.

파르·스탠백 핀란드외상은 성명이 발표된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지난79년 핀란드에 부임한 유가 IPU회의개최문제와 관련,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만 말했다.

핀란드·커머셜TV방송은 유를 비롯한 北韓외교관들이 지난해 가을부터 IPU의장이었던 요하네스·비롤라이엔 전의회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하려했으나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핀란드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北韓측이 83년 IPU총회 서울개최결정을 번복하기위해 뇌물공세를 벌였으며 여러명의 아프리카의원들도 뇌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핀란드를 비롯한 北歐국가들은 지난76년 北韓외교관들이 술·의약품·담배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추방한바 있다.

### 北韓 買收공작개탄 外務部、非公式논평

외무부당국자는 15일 북한의 駐핀란드大使 유재한이 핀란드국회의원 買收사건으로 追放令을 받은데 대해、『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국제회의결정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번복시키려는 책동을 개탄한다』고 비공식논평했다.

북한은 작년 가을 국제의회연맹(IPU)로마理事會에서 70차총회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되자 아프리카、北歐、中南美국가들을 상대로 서울총회방해공작을 펴왔으며 4월24일부터 29일까지 헬싱키에서 열리는 IPU이사회에서 금년총회 개최지를 변경키위해 막대한 자금을 뿌린것으로 알려졌다.

### 단장에 權正達의원 IPU代表團 구성

국회는 오는24일부터 29일까지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제1백32차 국제의회연맹(IPU) 理事會에 참석할 대표단12명을 다음과같이 구성했다.

▲權正達(단장)·吳世應·李台燮·任哲淳·鄭善昊·金蔡妊(이상民正)·金承穆·李閔基·黃山城(이상民韓)·李泰模(국민)·高貞勳·朴定洙(이상議政)

◇핀란드정부로부터 14일 추방령을 받은 헬싱키주재北韓대사 유재한. 【헬싱키14日AP電=聯合】

### 日基督敎의장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15일 상오 청와대에서 일본 그리스도敎협동총회의 사에끼·요이찌로(佐伯洋一郞)의장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이날 하오 訪韓중인 가봉의 봉고대통령長男인 알리·벤·봉고순회대사를 접견했다.〈사진〉

### 京鄕師道賞 수상자 全대통령、격려致賀

全斗煥대통령은 15일 하오 청와대에서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金鳳動씨(45·全北益山王宮국교교감)등 제2회 京鄕師道賞수상자 12명을 위해 다과를 베풀고 공로를 치하했다.

# 全대통령 親書전달 레이건에 訪韓초청

### 尹國防

【워싱턴=申鉉鉉특파원】제15차 韓美안보협의회에 참석하기위해 방미중인 尹誠敏국방장관은 14일상오 白堊館으로 美대통령을 예방、全斗煥대통령의 친서를전달하고 각별한 방한초청의사를 전하고 韓美상호방위조약에 따른 美國의 대한방위조약이 확고함을 확인했다.

尹장관은 레이건대통령의 방한이 주한미군의 사기를높이고 한반도및 東北亞안보에 크게기여할것이라는全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자리에서 全斗煥대통령이 자신의취임후 처음 방한한 국가원수임을 상기시키고 全대통령에 각별한 안부를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참석자가 전했다.

尹장관은 또 강력한 자유진영지도국으로서의 美國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정치·경제·군사측면에서 국제질서를 확립한 레이건대통령의 영도력에 경의를 표한다는 全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尹장관은 이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동서간의 이익이 상치되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요지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는것이 레이건대통령의 세계전략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全대통령의 의사를 아울러 전했다.

이자리에서 레이건대통령과 尹장관은 지난30년간 韓美양국정부의 공동노력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시켜왔음을 확인하고 양국이 평화를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는 희망을 표명했다.

◇尹國防、레이건禮訪 레이건 美대통령이 14일 백악관접견실에서 韓美연례안보협의회에 참석차 訪美중인 尹誠敏국방장관의 예방을받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14日AP電=聯合】

### 베트남軍 泰침공 外務部、우려聲明

외무부의 鄭基鉉대변인은 15일 성명을 발표、『한국정부는 최근 베트남軍의 캄보디아난민에 대한 비인도적인 공격과 泰國영토침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 金鍾泌 前共和총재 美國방문 어제出國

金鍾泌前국무총리가 美콜럼비아大초청으로 약2개월간의 미국방문을위해 15일하오 KAL편으로 출국했다.

이날 向美에는 韓內起前캐나다대사、金尙年前共和黨의원、權必烈前美홍우드大교수가 동행했는데 金前총리는 출국에 앞서 기자들에게『공부하러간다』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 韓美 조기警報力 강화

## 年例 안보協폐막…10개項 공동성명 발표

【워싱턴=李文熙·申鉉鉉특파원】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30주년을 맞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제15차 한미 연례안보회의가 15일상오『양국은 한반도는 물론、東北亞의 안보를위해 동반자적 위치에서 장·단기전략을 협의해나간다』는 내용을 확약하는등 중요한성과를 거두고 폐막됐다.

이날 尹誠敏장관과 와인버거장관은 예정에없던 2차단독회담을 가진다음 회의결과를 마무리짓는 10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양측대표단이 한반도와 東北亞의 전략을 상호교환했으며 안보협의회의를 상설 전략협의체로 발전시켜나갈것을 다짐했다.

양측대표단은 또 이번회의에서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보장하는 대안이 마련될때까지 유엔군사령부가 평화유지기구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는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 했다.

양측은 한미연합사의 효율적운영에 만족을 표명하고 한미연합방위능력 향상을위해 전술정보의 교환은물론 인원 장비 예산상의 협조체제를강화하여 전력생산을 극대화해 나가자는데도 합의했다.

이와함께 양측은 한미연합군의 조기경보력을 강화하고 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을 더욱실전적인 내용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추진중인 주한미지상전투력과 한국을 지원하는 공군력및 서태평양지역해군력의 증강방안을 설명했으며 尹誠敏장관은 한국군의현대화계획 추진과정을 밝혔는데 양장관은 막강한 연합군사력만이 한반도의전쟁을억제한다는데 의견을같이했다.

### 土開公 사장에 金壽鶴씨 임명

정부는 15일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에 金壽鶴前국세청장을 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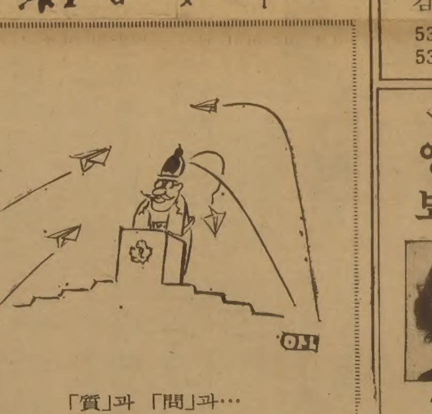
### 先進祖國창조標語 公募
### 25일마감…當選作 1편 50만원

韓國新聞協會는 先進祖國 創造를위한 標語를 公募합니다. 우리社會에서 부정적 심리를 추방하고 의식의 선진화를 통해 밝은내일을 건설하는데 촉매역할을 할수있는 참신한 내용의 작품이어야 하겠읍니다. 다음要領을 참조하시고 많은 應募있으시기 바랍니다.

1、公募기간:4월6일~4월25일까지
2、標語내용:①질서의 生活化 거리、교통질서、行楽질서、경기장질서、상거래질서、기타 공공질서 ②健全소비생활 호화혼수 지양、外製選好지양、알뜰살림 가꾸기、식생활 간소화 ③請託안하기 ④信賴기풍조성 시간및약속지키기、친절하기 ⑤主人意識함양
3、應募方法:①위 내용가운데 한가지를 選擇하여標語를 만들것 ②반드시 관제엽서를 사용하되 1枚當 1편만을 記入
4、施賞:①당선작1편 상금 50만원및상패 ②우수작2편 상금각20만원및상패 ③가작16편 상금 각5만원및상패
5、審査및발표: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審査위원회가 심사하여 5월10일(화)字 全國신문지상에 발표
6、接受處:韓國新聞協會 우편번호100 서울특별시 중구중림동4(한국경제신문사 별관4층)

韓國新聞協會·한국일보社

### 社會漫評



「質」과 「問」과…

### 地平線

3백년전에 걸리버여행기를 쓴 영국작가 스위프트는 독설가로 유명했다.『과학자라는 놈들은 어리석기 짝이없는 황당한 꿈만꾼다. 도저히 실현될수없는 연구에 온정신을 바치는 미치광이들』이라고. 걸리버선장이 본 라가도대학에는 연구실이 5백개나되고 기상천외의연구에 모두 매달려 있었다.

▼한데 이「미친」과학자들의 꿈이 대부분 현실로 나타났으니 놀랄수 밖에없다. 열을태워서 화약을 만들려던 연구는 熱核融合反應으로 발전했고 水爆으로등장했다. 오이에서 햇빛을 抽出하려던 계획은 太陽電池로 이룩됐다. 거미줄에서 직물을 만들려던 꿈은 나일론으로 나왔다. 왕겨에서 번식력을 찾으려던 연구는 호르몬 과학으로 발전 했다. 과자 껍데기에다 뇌병약으로 수학 문제와 그 해답을 써서 이것을 학생들에게 먹여 수학을 외게하려던 연구는 대뇌생리학、전자계산기로 실현됐다.

▼그뿐아니라 그소설속의 날으는섬은 오늘날우주정거장、우주선으로 사람들머리위를 빙빙 돌고있다. 우리 조상들이 꿈에도 못보던 우주선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난것이다. 그 모형이기는 하나 실물 크기의 아폴로및 콜럼비아호를 어제부터 두달동안 83우주과학 박람회에서 전시하고 있다. 6천여평 전시관에 月面車、우주복등 5백여점을 진열했다. 이 기념행사를 위해 아폴로12호 사령선 선장 고든씨까지 서울에 와있다.

▼「오는 2천년대 초엔 지구인들의 달여행이 실현되고 우주도시가 생길니다. 한국에서도 우주관광객을 모집하게 될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걸리버여행기에나온 공상과학소설의 테마가 실화로 소개될날이 멀지않았다는 얘기다.

▼宇宙病藥도 개발된 모양이다. 무중력상태에서 멀미로 구역질이나는것을 예방하기위해 귀뒤에 스코폴라민이란 진정제를담은 동전크기의 圓板을붙이면 그약 효력이 피부에 침투한다고 한다.

▼宇宙食 역시 처음엔 튜브에넣던것을 이젠 固形食에 물을타서 먹는 인스턴트식품이 개발됐다. 편해질대로 편해진 세상이다. 다만 이웃 일본에선 白鳥、極光、菊、해바리기 같은 인공위성을 몇개씩 발사했는데 우리는 우주박람회를 이제야 열고 있으니 좀 안타깝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 종교서관

## 개업 4주년 기념세일안내

할렐루야!

개업 4주년을 맞아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과 여러분, 그리고 교민들께 그동안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애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저희 서점도 뜻과 정성을 다하여 문서복음사업에 정진하려고 다짐하오며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승리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길 기도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Sale 기간 : 4월1일~30일

★품목 : 성화, 성가테입, 설교테입, 성경, 성경주석, 기독교서적, 소설, 전집류, 사전

◆설교테입◆
김남수목사 박조준목사
김중기목사 박희민목사
김의환목사 조창환목사
김창인목사 홍순관목사
김형태목사 홍반식목사
김홍도목사 이상훈목사
강달희목사 임태진목사
고원용목사 한경직목사
신예철목사 한기원목사
표지현전도사 한진관목사
김형석교수 최복규목사
이안수집사 최자실목사
안이숙선생

◆조용기목사 강해집테입◆
다니엘서 강해 8개
요한계시록 강해 10개
주기도문 강해 6개
팔복(산상보훈) 강해 3개
빌립보서 강해 8개
에베소서 강해 8개
갈라디아서 강해 8개
히브리서 강해 12개
고린도전서 강해 20개
로마서 강해 18개
목회세미나 6개
구역장세미나
설교테입 수백종

◆영어설교테입◆
조용기목사 굳데일목사
김중기목사 안이숙선생
로버트 슐러목사 킴 윅스 영어설교

◆기타◆
곽규석장로간증
허림집사간증
이동원목사 새생활세미나
할렐루야 아줌마(최자실목사 목회여화)
천로역정강화(이성봉목사)
성경낭독
영어회화
각종성가
킴 윅스 간증
요한계시록 해설드라마

종교서관 714 Bloor St. W. 〈아리랑 하우스옆〉 ☎: 535-1920

# "油價 85년까지 凍結"

## OPEC、배럴당 29弗 방어방침

### 연내 消費國과도 협상

【워싱턴UPI=聯】石油輸出國機構(OPEC)는 『적어도 오는 85년까지』 OPEC基準油인 輕質油가격을 현행 배럴當 29달러에서 동결할 방침이라고 마나사예드·알·오타이바 아랍 에미리트 聯合(UAE) 석유상이 14일 말했다.

오타이바석유상은 이날 월 스트리트·저널紙와의 회견에서 OPEC內 페르시아灣 産油國들은 세계경제회복을 지원하기위해 배럴當29달러의 현행OPEC基準油價를 방어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관련, OPEC는 금년중으로 産油國및 석유소비국들간의 『汎세계적이해』에 도달하기위한 협상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OPEC가 최근 非OPEC주요産油國인 英國및 멕시코와 접촉, 이들국가로부터 그들의 産油量을 현재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면서 OPEC는 이같은 다짐을 바탕으로 여타非OPEC産油國들과의 접촉을 확대해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이 「선거戰士」의 出馬아닌 「出象」 오는18일의 타이총선을 앞두고 무소속의 한 입후보자가 코끼리등에 올라앉아 그의 정견과 공약을 외치고있다. 【방콕14일AP電送=聯】

## 美·北韓접촉 仲介안해

### 日外務省、平壤측서 관계改善 희망해도

【東京=聯】일본外務省의 미야께·와스께(三宅和助)정보문화국장은 14일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더라도 일본이 중개역할을 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외무성에서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번 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이 평양을 거쳐 일본에왔을때 북한측의 對美관계개선희망을 하나의 정보로서 전달했을뿐 평양의 메시지를 가지고오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일본이 중간에 서서 미국에 그같은 북한의 뜻을 전달하는등의 중개역할을 할생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또한 韓半島교차승인문제에대해서도소련이부정적반응일변도였다고밝혔다.

### 엘空軍장교 抗命 國防相사임 요구

【산살바도르UPI=聯】엘살바도르 공군장교들은 14일 對게릴라戰수행과 관련, 통솔력문제를일으키고있는 호세·기예르모·가르시아 국방상이 24시간내에 사임하지 않을경우, 抗告하기로 했으나 이에도불구하고 對게릴라戰은 중단하지 않을것임을 밝혔다.

환·라파엘·부스티요공군사령관은 15일부터 가르시아국방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후 이날 수도의 일로판고공군기지에서 긴급90人空軍장교회의를 소집, 抗命문제를 논의했다.

### 美의 레이다監視機 카리브上空서 작전

【워싱턴UPI=聯】美국방성은 14일 中美지역의 카리브海상공에서 美레이다감시 비행기들이 작전을 수행중이라고 밝혔다.

국방성대변인인 마이클·버치중령은 『AWACS機가 현재 그곳에서작전중이며 장래에도 작전을할수 있다』면서 『이 모든 작전은 국제법에 따르고 있다』고만 말했다.

### 美、太지역 지휘관 5、7월에 大異動

【東京=聯】美국방성은 앞으로 곧 퇴임하게될 에드워드·C·마이어美육군참모총장후임에 존·위컴 前주한 유엔군사령관을 임명하는등 美태평양지역주둔 육·해군 최고지휘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오는5월과 7월두차례에 걸쳐 단행할방침이라고 일본의 산께이(産經)신문이 14일하오 보도했다.

산께이는 駐日美軍司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인사이동에서 韓·日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던 많은 美육군지휘관들이교체될것이라고 말했다.

## "日本이 전략의 核"

### 홍콩誌 美、中共중시 亞洲觀 변경

【홍콩=聯】미국은 지난10여년간 중공을 세계전략차원에서 중시해오던 입장을 바꾸어 지역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대신 일본을 중시하고 있다고 영문주간지인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지가 14일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정권이 지난 2년동안 과거의 정권보다 세계전략차원에서의 중공의 위치를 덜 중시해 왔다고 밝히고 특히 슐츠美국무장관은 과거10여년동안 미국이 對아시아정책카드에서 중공을 에이스(최상의 카드)로 취급하던입장과는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 反體制 19명 復權

### 아르헨、民政이양 조치로

【부에노스아이레스UPI=聯】아르헨티나군사정권은 14일밤 민정이양을 위한 주요 조치로서 축출된 전대통령이사벨·페론여사를 포함, 모두19명의정치·노조지도자를 복권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조치는 8년간에 걸친군부통치를 종식시키는 길을열어 놓았으며 오는 8월30일로 약속된 선거이전에 자유롭고 공개적인 선거운동을허락하겠다는 군사정권의 서약을 실현시켰다.

### 鄭泰演 KT부사장 PATA총회 참석

本社鄭泰演코리아타임스담당부사장(사진)은 오는 18일부터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열리는 제32차 PATA(太平洋地域觀光協會)총회에 초청연사로 참석하기위해 15일 하오 현지로 떠났다.

### 四·七言論人會定總 회장에 李寬求씨

四·七言論人會는 지난 14일 열린 제7회定期總會에서 다음과같이 새任員을 선출했다.

▲會長 李寬求 ▲副會長 方樂榮 ▲〃 李漢鎔

### 內外動靜

▲국회의 蔡汶植의장을 비롯한 신임의장단과 각상위장들은 15일상오 국립묘지를참배.

### 人事異動

韓國전기통신공사 ▲서울지사장 金正烈 ▲본사영업국장 黃永善 ▲全州지사장 李翊相 ▲중앙건설사무소자재본부장 金麗錫

農地改良組合聯合會 ▲감사 陳正基 (16日字)

## 社說

### 北韓의 外交的失態

#### —民族긍지損傷과 挑發 삼가야

거듭되는 北韓外交官들의 국제적 망신에 관한 보도에 접할때마다 우리는 개탄어린 분격과 더불어 착잡한 심정을 가누기 어렵게 된다. 두제넘는「게릴라 수출」에 이어 마약·시계·주류따위 밀수에다 추행미수사건까지 보도되더니 작금에는 駐在國정치인들에 대한 뇌물공여사건이 부각되는데 이른 것이다.

이경우에 그들 역시「코리안」으로 불리는 형편이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같은 민족으로서 창피와 부끄러움을 감내하기 어렵게 된다. 나아가 南北韓간의 직접對話가 北韓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거부된 상황속에서 外交的 과당경쟁으로 말미암은 民族力量의 浪費에 想到할때에 안타깝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드디어 핀란드政府는 14일 헬싱키駐在 北韓大使 유재한을「기피人物」로 선언, 사실상의 추방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곳外務省의 성명에선 밝히지 않았으나 유는 國際議會聯盟(IPU)총회의 서울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핀란드 政治人들에게 뇌물을 주려다가 발각되었다는 전해들이 많다. 한편 未確認 보도를 보면 北韓은 이미 여러명의 아프리카 地域 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네주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事例는 北韓外交官들의 국제적추태가 결코 개별적인것이 아니라 [illegible] 계통적인 지시에따라 발휘된 것을 쉽사리 헤아리게 한다. 그들은 올가을 국제의회연맹총회의 韓國유치와 나아가서 86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88년 올림픽 서울개최등으로 몹시 초조하여 수단방법 불문의 방해공작에 광분하는 꼴이다.

平壤측은 韓國의 국제지위 향상이 그들자신의 지위 격하를 초래함으로써 그동안 北韓주민들에게 벌인 허위선전의 馬脚이 폭로될까 두려워하고있음이 명백하다. 北韓의 경제파탄이 말이 아닌데다가 金正日후계체제 구축에 얽힌 政治的 不安이 가중되는 등 民心이탈과 내부갈등의 심화에 당황한 나머지 앞으로 무슨 도발과 음모를 시도할지 모른다.

그런데 北韓外交官들은 지난 76년에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北歐일대를 누비면서 外交官특권을 악용하여 술·담배·마약등을 밀수 내지 不法去來하다가 추방된 事例가 있다. 이같은 경우는 北韓측이 外交豫算의 부족에 허덕인 나머지「활동비용의 현지조달」을 지시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짙게 했던 것이다. 하나 작년에 말썽된 駐유엔北韓代表部직원 오某의 美國여성에 대한 추행미수사건등을 감안한다면 외교官의 자질과 선발방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관측케 한다.

주지한바와같이 북괴는 소위「프롤레타리아 獨裁」를 운위하면서 불과 20여%정도의「核心成分」치고도 金日成·金正日世襲體制에 맹목적으로 피상적인 충성을 보이는듯 싶은 劣惡한 사람들만 선발하여 外交官으로 海外에 파견해 왔던 것이다.

그러니 國際社會의 通念인 外交官의 일곱가지 資質 즉 誠實·正確·平靜·穩和·忍耐·善實·忠信 같은 품성은 애당초 기대할바도 되지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外交政策의 基調란 것이 고작해야「國際革命力量강화」니「南朝鮮革命의 조건형성」등으로 풀이되는 敎條的迷夢에 집착한 실정이고, 方法論에 관해서는 항시「무장」과「전란」을 떠벌리는 한심한 실정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北韓은 지금부터라도 늦지않으니 더이상 外交舞臺에서 民族力量을 낭비하며 民族的 矜持를 손상시키는일 없도록 大悟猛省하기 바란다. 不然이면 온겨레의 분노와 國際社會의 한결같은 비난을 면치못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수 없다.

### 놀라운 大盜犯 도주

#### —監視와 護送에 소홀함 없었나

前科11범의 상습특수절도범 趙모가 구형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가기직전 법원구내待機監에서 탈출한 사건이 일어나 놀라움을 금치못하게 한다. 14일하오 서울刑事地方法院의 구형공판정에 나왔다가 구치소로 호송되기에앞서 수용됐던 대기감에서 도망쳐버린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가 임시로 수용되었던 대기감(2층)은 공판정에서 40여m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으며, 바닥에서 1.8m높이에 가설된 換風장치를 파괴한후 그 구멍으로 빠져나간것 같다는 추측들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범인이 입었던 囚衣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갈아입을 옷을 제공한 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어쩌면 같은 일당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도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어보인다.

어쨌든 죄수감시과정에서 발생한 큰 不祥事라 하겠다. 그러므로 우선 급한문제는 한시바삐 도망간 범인을 다시 검거하는 일이다. 특히 도망간 犯人은 나이 39세에 盜犯 前科11범이라니 대단한 도둑임에 틀림이없다.

범죄혐의자가 재판또는 조사를 받기위해 구치소에서 나왔다가 감시·호송과정의 虛를찌르고도주한 사례는 과거에도 더러있었다. 당국은 그때마다 감시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다시는 그런 不祥事가 일어나지않도록 대책을 세운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도 大盜犯이 도주하는 따위 不祥事가 또 터졌음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알려진바 이번에 범인이 임시로 수용되어있던 대기감은 그건물이 낡고 허술하다 한다. 바로 이런데서부터 盲點이 도사렸던것으로 보는것이다. 새로 대기감건물을 짓든지하여 먼저 시설면에서 不祥事發生의 근원을 제거해야 할것이다.

형사피의자가 재판받기위해 獄門을 나온뒤부터 再收監이되기까지의 수송·대기·入廷등의 모든 단계에서 이를 호위·감시·단속하는 과정에는 과연 虛點이 없었는지, 엄밀히 살피고 동시에, 있다면 이를 즉각 바로잡는 조치가 따라야 할일 또한 중요하다.

刑法과 刑事訴訟法및 行刑法은 범죄혐의자를 검거하지 못하거나 이번 처럼 혐의자를 놓치면 실질적으로는 死文化하다시피 될수밖에 없다. 그만큼 犯人검거와 검거된범인을 놓치지 않는 일은 국가적으로 중요한것이다. 모든 수사요원과 구치소요원들은 이렇듯 중요한 그들의 사명을 이기회에 새삼 재인식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도망친 흉악범의 자가 면밀히 추적되고, 당국자들이 全力을 다하여 범인수색과 검거에 분발할 것을 바라며 지켜보고 있다.

도망친 犯人은 지난날 수억원에 이르는 남의 재산을 훔친 사실이 있는만큼, 궁여지책으로 또 무슨 엄청난 탈선과 범행을 저지를는지 알수없다. 따라서 온 국민이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관계당국은 私情을 버리고 용기를 내어 각 체포·再收監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럴진대 도망범이 결코 오래 숨지는 못할것이다.

아울러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번 도주사건의 진상을 옳게 가려 앞으로 다시는 이런 不祥事가 發生치않게끔 필요한 시설·절차·紀律을 확립하고 물샐틈없는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 政局往來

◆與野、時局觀에對照的견해보여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對정부질문을 벌인15일하오의 국회본회의는 與黨의원들이 지난2년간에 대한 정치적평가와 時局觀에 대해 讚揚과樂觀論을 펴면서 閣僚들을 치하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정반대의 견해를 표명.

첫 질문자인 鄭男의원(民正)은 『지난 2년간 우리는 혼란과 무질서의 긴 터널을 나와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되찾았다』며 『非理와 부정을 추방, 정의로운 사회의 기틀을 다져가고있다』면서 각분야의 업적을 羅列式으로 지적.

金顯根의원(民正)은 『세상은모두 평화로와라』로 끝나는「봄날아침」이란 브라우닝의 詩를 인용한뒤 『눈부신 外交활동과 세기적인 스포츠의교류등을 통해 한국외교는 바야흐로 黃金시대를 맞았다』고 禮讚하면서 「東方의 빛」이란 타고르의 詩로 끝을 맺었다.

반면 申鎭洙의원(民韓)은 『11代국회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민은 심판관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여전히 특권의식과 權力反應주의 획일성 경직성 그리고 무관심 冷笑주의 한탕주의 살아남기主義등의 症狀이 남아있다』고 주장.

그는 또 『70년대이래 지속되온 정치적 현실과 도덕적 진실의 갈등은 「정치의 喪失」과 「言路의 막힘」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與黨과는 대조적인 時局觀을 피력.

金完泰의원(국민)은 『지난2년간 우리는 사회적으로 많은 구조적 병폐가 표출되어 자유민주체제의기초가 위협수위로 挑戰받고있다』면서 『우리의 사회는 원칙의 基底가 무너지고 희망과 상실의 상황의 연속을 경험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

이날 申鎭洙의원이 『제한된 시간내에 많은 얘기를 하려다보니 의장이나 의원들을 앞에 놓아야할 「존경하는」이란 수식어가 빠졌다』면서 국회법개정을 주장하고 내려오자 蔡의장은 『존경하는 의장이라는 말을 안해도 좋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른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모독의 기준은 의장이 판단하고 의장직권으로 금지시킬수있기 때문에 의장직권이 발동되지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받아넘겨 의석에선 웃음이 터지기도.

◆行政需要많고 舊態依然여전

이날국회 답변에 나선 金相浹국무총리는 『행정부는 일도 많고 행정需要도 많아 舊態依然한 面이 아직도남아있다고생각한다』고是認.

金총리는 행정萬能주의를 꼬집는 鄭男의원(民正)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대목 대목 많은 동감을 하며 정부가 너무 肥大한 권한을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이는 과거의 官尊民卑사상과 70년대의 정부主導下의 경제성장정책이 타성이 되었기때문』이라며 『이 병폐가 一朝一夕에 없어지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행정의 선진화와 민주화는 영구未完成의 영구작업이란것을 이해해달라』고 답변.

### 金총리 "정부가 너무 肥大한 권한 갖고있다고 느낀다" 답변

盧泰愚내무장관은 답변에앞서 金根組씨 치사사건에 언급,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깊숙이 고개를 숙인뒤 『이번사건으로10만경찰이 땀흘려 쌓아올린탑이 몇사람에 의해 하루아침에무너지는허탈감에번뇌도못할입장』이라고謝過.

그는 이어 『앞으로 경찰의 가혹행위는 가차없이 一罰百戒로 응징하겠다』면서 『민주봉사경찰像을확립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기도.

◆改憲說… 統一憲法 연구가 訛傳

權翊鉉民正黨사무총장은 15일 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 항간에 나도는 改憲說과 戰警의여대생추행說등 風說에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權총장은 『요즘 특별히 떠도는루머가 있느냐』고 기자들에게 질문을 유도한후 『외신보도에 改憲說이 나올때에…』라는 반응이 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얼마전 언론계 인사를 만났더니 그얘기를 하는데 南北韓 통일에 대비, 일부헌법학자들을 동원해 통일헌법을 연구한것이 訛傳된것 같다』고 설명.

그는 또 『최근학원가에서 某여대생이 戰警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어 알아봤더니 加害者가 다른 사람인 것이 밝혀졌다』며 『사건의 성격상 구체적해명을 할수도 없고…』라고 난처한 입장을 넌지시 비쳤다.

한편 金瑢泰대변인은 權총장의 말을받아 『만약 改憲문제에 관해 여당의원이 질의하고 총리가 「改憲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은것 같더라』고 한마디하기도.

◆레이건、訪韓親書에긍정적반응

제15차 韓美 안보협의회의 수석대표인 尹誠敏국방장관은 14일하오6시30분(현지시간) 워싱턴 시내 포트맥네어 美국방대학원 장교클럽에서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을위한 리셉션을 개최한데이어 2시간뒤인 하오8시30분 부터는 숙소인 워터게이트호텔에서 미국대표단을 위한 만찬을 베푸는등 바쁜 움직임.

이宴會와 만찬에서 참석자들의 시선은 이날상오 레이건대통령을 예방하고나온 尹장관에게 쏠렸는데, 尹장관은 『레이건대통령이 매우 정답게 맞아 주었다』며 訪韓을 요청한 全斗煥대통령의 親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 傳言.

尹장관은 지난 3일 서울을 떠날때까지 백악관 예방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渡美後 美군사시설을 시찰하는도중 콜로라도에서 레이건대통령예방日程을 알게됐다는 것. 【워싱턴=李文熙특파원】

## 外信안테나

### 노동절에 대대적 反政시위 촉구

#### 波 자유노조지도자들、코뮈니케

【바르샤바AP=聯】不法化된 폴란드 자유노조(솔리다르노스크) 지하운동지도자들은 14일 성명을 발표, 오는 5월1일의 노동절에 反정부 에 반대하는 폴란드국민들의 단결을 대내외에 과시하기위해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도록 촉구했다.

自由勞組비밀지하운동단체인 「잠정조정위원회」(TKK)는 이날 西方기자들에게 보낸 코뮈니케를 통해 오는 5월1일 노동절의 정부측 공식행사는「노동자들이 스스로 장래를 결정할수 있는 권리에 대한 모욕」이라고규정, 정부측이 주최하는 일체의 공식행사를 거부하고 지하자유노조가 마련한「독자적 행사」에 참여해주도록 모든노동자들에게요청했다.

【워싱턴AP=聯】美본토 어느곳이라도 공격할수있는 소련의 블랙잭폭격기개발은 美방공망현대화를 보다 시급하게 만들고 있다고 美공군기관지 에어포스誌 최신호가 14일 보도했다.

### 總選 앞두고 泰에 정치테러 連發

#### 13일간 6명사망…모두 18명被殺

【방콕AP=聯】오는18일 總選을 앞두고 정치테러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타이에서는 13일 또다시 두곳에서 폭력사건이 발생, 6명이 숨짐으로써 이제까지 선거운동기간중 최소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타이당국이 14일 밝혔다.

내무성의 한관리는 북부치앙·라이성에서 한차량에 장치된 폭탄이 터져 타이民主黨소속 후보자 1명과 선거운동요원 1명이 숨지고 또다른 운동요원 1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 이란、駐蘇대사파견

#### 1년간의 空席메워

【모스크바NAAS=聯】이란정부는 1년동안이나 공석중이던駐蘇이란大使에 키야·타바타바이를 임명, 12일 모스크바에 파견했다.

키야·타바타바이신임駐蘇이란대사는 직업외교관출신이 아니고 정보과학분야를전공했으며 잠시 이란외무성의 전산실장으로 재직했으나 외국근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 印尼、현정권서처음 급진파回教徒 처형

【자카르타外=聯】인도네시아의 回教급진파단체인 제마아·임란의 지도자 임란·빈·무하마드(32)가 수하르토 대통령정권이래 급진파회교도로선 처음으로 처형되었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13일 말했다.

## 10년간 나자로마을支援…「다미안神父賞」수상

### 日 저명女流作家 아야꼬 女史

◇한국聖나자로마을의 나환자를 10년동안 도운 공로로 15일 다미안 神父賞을 받은 曾野綾子여사.

『28년간 소설을 써오는 동안 文學賞을 받게될 기회도 있었으나 거부했었어요. 어쩐지 세속적인 영달을 추구하는 것같아서지요. 그러나 이번의 「다미안 神父賞」은 아주 흐뭇하게 받기로했어요』

日本의 저명한 여류작가 소노 아야꼬(52·曾野綾子)여사가 내한, 15일 하오 京畿道 始興의 聖나자로마을에서 한국가톨릭 나사업가협회가 주는 제1회 다미안神父賞 공로상을받았다.

소노여사는 지난 10년간 성 나자로마을의 나환자를 돌보는 간호원1명의 봉급으로 월 3백50달러, 나환자들의 생활비 보조금으로 월3백50달러씩 도합 월7백달러를 매달 지원해온 공으로 상을 받은 것.

다미안神父賞은 「나」 전하와이 모로카이섬에서 나환자를 16년간돕다가 그자신도 나병에 감염되어숨진 벨기에人 다미안神父를 기리기위한 상이다.

聖心유치원·初·中·高와 聖心女大영문과를 졸업한 소노여사는 학력이 보여주듯 독실한 가톨릭신자. 자신의 저서 60여권중 6권은 信仰心에 바탕을둔 종교에세이 또는 소설이라고 말한다. 그의 종교수필집「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가?」는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그외에도「神의 더럽혀진 손」「無名碑」는 성서에 토대를 둔 소설로 日本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80년에「神의 더럽혀진 손」으로 日本여류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됐으나 수상을 사양했었다.

「먼데서 온 손님들」(54년 芥川賞후보)등 많은 걸작 소설을 발표한 그는 지난한달간 역시 작가인 부군 三浦朱門씨와 아프리카에서 취재여행을하고 귀국길에 이번 시상식에 참가했다.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둔 이들 작가 부부는 17일 불우이웃돕기백만인걷기운동에 참가해서 日本에서 모금해온 후원금도 전달하고 18일 떠난다. 【李享淑기자】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시
(토) 아침10시~저녁 7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윈

# 「大盜」趙世衡 대낮 大脫走

## 구치감 換風機뜯고

### 이웃 건물 屋上에서 囚衣 바꿔입어
### 면회객 가장 탈출도운 共犯 있는듯
### 社長·高官집대상 5억털어 無期징역

# 共犯집에 "30萬원달라" 電話두번

14일저녁

전과 11범인 대도(大盜)趙世衡(39)이 14일하오 3시25분께 서울中區 西小門洞 법원구내 구치감에서 TV드라마속의 죄수처럼 탈출해버렸다. 趙는 이날하오 2시께 서울형사지법 14부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넘겨지기 직전 다른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나오기를 기다리던중 구치감벽의 환기통을 뜯고 탈주, 담을뛰어넘어 이웃 韓一병원을 통해 시내로 잠입해 버린것이다.

탈출에 성공한 趙는 이날 하오7시와11시께 두차례에 걸쳐 공범인 단골장물아비 鄭允龍씨(37·구속수감중) 집(서울西大門區 弘濟洞322의119·태진연립주택다棟101호)에 전화를걸어 鄭씨부인 梁모씨에게 『탈출했는데 돈이 없다. 30만원만 구해달라』고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서울을 빠져나가지못한채 은신해 있거나 도피자금마련을 위한 범행가능성도 있는것으로보고있다.

한편 서울구치소는 趙가탈출직후 구치감과 이웃한송치피의자 구치감 2층옥상에서 趙가벗어놓은 수의한벌을 발견, 공범이 미리준비해 놓은 일반 옷으로 바꿔입고 도망한것으로 보고 경찰과 합동으로 추적중이다.

구치소도 이와함께 趙가 수감중 면회객을 가장한 공범과 탈출극을 모의했을것으로보고 그동안 趙를 면회온 사람들을 모두 찾고있다.

趙는 상습특수절도전과만 11범으로 지난해7월부터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정부고관, 국회의원, 기업체사장등 부유층집만골라 5억원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11월28일 서울東大門경찰서에 구속돼 지난2월25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에 보호감호 10년이 구형됐었는데 경찰이나 범죄사회에서 大盜라는별명으로 통했다.

**탈주경위** 趙는 이날 오2시 공범4명을 포함한 다른사건피고인15명과 함께 형사법원 대법정에 입정, 담당재판부(재판장 金盛晥부장판사)심리로 40분가량 재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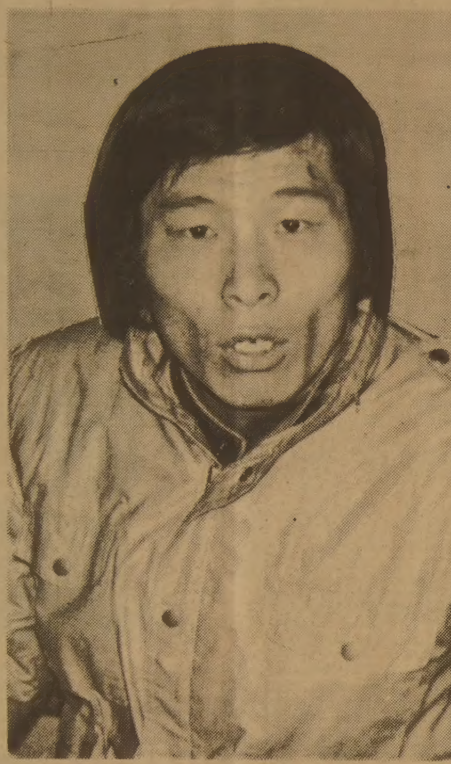
재판이 끝난뒤 趙는 다른 피고인7명과함께 교도관의 호송을받으며 법정에서 20m 가량떨어진 서울구치소 피고인대기 구치감으로가 3층22호실에 다른피고인 3명과 함께 입감됐다.

입감직후인 3시25분께 3층담당 교도관이 2층에 내려가 2층담당 교도관과 잠시 대화를나누는순간 趙는 22호실문을 발로차고 복도로나와 한쪽수갑을 푼후 포승도풀어 복도에있던 책상위에 버리고 복도벽에붙은 환풍기(40×40cm)를 뜯어내고 40cm가량 떨어진 송치피의자구치감 2층옥상으로뛰어내렸다.

趙는 옥상에서 입고있던 남청색미결수복을 벗어버리고 한쪽손에 수갑을찬채 1,2m쯤 아래인 법원구내매점옥상으로 다시 뛰어내려 이웃 韓一병원 담을넘어 달아났다.

趙가 탈주할당시 구치감정면에있는 교도관대기실에 5~6명의 호송교도관이 있었으나 피고인들의 입·출감이 잦아 趙의탈출을 눈치채지못했다.

趙는 탈주당시 하의는 미결수복차림에 신발은 털신을 신고 있었다.



◇나를 보지마라 전국을 무대로 「신출귀몰」하다가 6개월간의 끈질긴 추격을받고 잡혔을때 (82년11월28일)의 趙世衡。

### 서울市內 잠복추정
### 주변인물 搜査집중

**수사**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지휘본부를 설치, 교도관과 경찰합동으로 수사중이나 15일 하오6시현재 잡지못했다.

지휘본부는 趙가탈출후공범으로 도피자금을 요청한 사실로 미루어 趙가 멀리도피할 현금을 갖고있지못한것으로 판단, 서울시내에 숨어있을것으로 보고 공범을 비롯한주변인물수사에집중하고있다.

한편 趙가 탈출한직후 서울구치소는 현장에있던 교도관30여명을 동원,수색작업을 벌여 구치감과 이웃한 건물인 송치피의자구치감 2층옥상에서 趙가 벗어던진 미결수복을 찾아냈다.

지휘본부는 또 趙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추적수사를 벌이는한편 군·검·경찰·출입국관리사무소등 관계기관에 체포협조요청을 했다.

서울구치소측은 趙와 함께 있던 공범들이 趙의 탈주를 도운게 아닌가보고 이들의 공모여부를 캐는한편 趙가 미결수복을 벗고 달아난점으로 미루어 계획적 탈주가능성이 있는것으로보고 밖에서 도주를 도운 공범들을 쫓고있다.

**현장** 趙가 탈주한 구치감3층은 법원구내매점과 바로 붙어 있는 넓은 슬라브3층 건물로 또 30~40cm 사이를두고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구속피의자가 대기하거나 구류신문을 받기위해 대기하는 구류신문을 받고나와 구치소로 넘겨지기전에 대기하는 송치피의자구치감(2층) 건물이 있다.

두건물은 1층 내부에서는 서로 통하게 돼있는데 구치감 3층복도의 환풍기를 뚫고 나오면 바로 거의 비슷한 높이의이웃송치피의자구치감옥상이며 趙는 이옥상으로뛰어내려 다시 같은송치피의자구치감 건물1층베란다로 뛰어내린뒤 옆에있는 법원구내매점지붕을 타고 달아났다.

매점옥상에서 韓一병원 담까지는 불과 3m거리. 이 3m공간에는 잡초등이 우거져 사람의 눈에 띄지않은채 병원으로 넘어 갈수있는 담을 오를수있다. 담은 2m높이며 이담위에서 병원구내뒷마당까지는 3m높이로 보통성인이면 뛰어내리는게 가능하다.

### 夫人홍콩 出國

趙의부인 羅씨는 趙가구속된후인 지난 2월16일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盤浦의 아파트는 팔아 현재 이집에는 딴사람이 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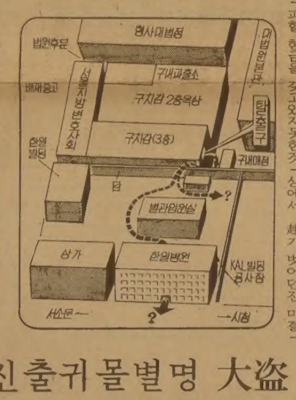
### "돈못준다" 고하자 電話끊어

**도피자금요청** 趙는 탈주후 장물취득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있는 鄭允龍피고인(37)집으로 건 두차례 전화에서 鄭피고인의 부인 梁모씨(32)가 전화를 받자『내가 탈주했다. 30만원만 구해달라』고 했다는것. 梁씨가 『돈을 줄수없다』고잘라말하자전화를끊었다. 鄭피고인은 趙와 수년동안 장물거래를 해온것으로 알려졌다.

趙의 가족으로는 검거되기전까지 서울 江南區 盤浦本洞 주공아파트 110동 506호에서 동거하던 羅모씨와 형, 형수등이있으나 趙가 이들을 찾아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趙는과거에도 범행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위해 절을 이용한적이 많은점으로 보아 산사에 숨어들었을 가능성도 높은것으로 보인다.

趙는 지난해3월 7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安養교도소를 출소했었다.




### 신출귀몰별명 大盜
### 감시소홀로 허찔려
### 共犯 분리수용도 의문

**문제점** 피고인 계호(戒護)에 구멍이 또 뚫렸다.

지난 81년6월5일 서울지법 南部지원에서 李相勳등 소매치기범 일당3명이 집단탈주한사건이 발생한지 1년10개월만에 또다시 趙가탈출, 방심의허를 찔렸다.

李相勳등 탈주사건당시 법무부는 강력피의자의 호송때는 수갑을채우고 다시 포승하는등의 탈주방지를위해 강력대책을 마련했었다.

특히 趙는 검거때부터 신출귀몰하는 「그림자신사」라는 별명이 붙을정도의 요주의 피고인이었는데도 그를 호송하거나 감시하는 방법과 태도가 허술했던게 틀림없다.

趙는 구치감방을 뛰쳐나온 직후 한쪽수갑을풀었고 이어 포승까지 풀었다.

2년전 법무부가 피고인 탈주방지를위해 풀기쉬운 국산수갑대신 성능이좋은 벨기에제수갑을 수입,대체한다고 공언했으나 이역시 공염불이 된셈이다.

법무부는 또 공범들은 구치소안에서뿐만 아니라 법원구치감에서도 분리수용 하겠다고 했으나 이번에도 이수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 大賞에「神話1900」(연극)·風雲(TV)

## 本社제정 한국연극영화 藝術賞 어제시상식

### 영화「안개마을」4部門수상

우리나라 무대·영화예술의 최대제전인 한국일보社제정 금년도 한국연극영화예술상은 연극부문에 「신화1900」, TV드라마부문에 「風雲」이 각각 大賞의 영예를 안았다.

15일 하오6시 서울롯데호텔 크리스탈룸에서 거행된 제19회 한국연극영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大賞이 심사위원들의 현장비밀투표에 의해 발표되자 식장을 메운 1천여 하객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축하를 보냈다.

KBS의 金東鍵·徐東淑 두아나운서의 사회와 金康雯악단의 팡파르로 막을올린 이날 시상식은 심사위원장 申榮均씨(예총회장)의 심사보고에 이어 부문별 시상에 들어갔다.

67년에 있었던 소년살해 미수사건을 다룬「신화1900」은 대상외에 작품·연출·남자연기상등 4개부문을 석권했다.

영화부문에서 대상은 나오지 않았으나 「안개마을」이 작품·감독·연기·기술상등 4개부문상을 휩쓸었다.

예술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연기상은 연극부문에 李承鎬·孫淑, 영화에 安聖基·鄭永淑, TV에 李榮厚·李鏡珍에게 각각 돌아갔다. 연기상수상자6명은 오는5월12일 거행되는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스타賞심사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영화부문연기상을 받은 安聖基·鄭永淑에게는 영화진흥공사사장의 특별상이 별도로 수여됐다.

시상식이 진행되는동안 가수 尹시내 李銀河 李湧 羅美의 노래가 막간을 수놓아 잔치분위기를 북돋웠으며 시상식 실황은 하오7시10분부터 KBS제2TV를 통해 전국에 중계됐다.

한편 시상식이 끝난뒤 수상자를 비롯한 2백여명의 연극 영화 방송관계자들은 롯데호텔 2층에머랄드룸에 마련된 축하리셉션에 참석, 한국의 대중예술발전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부문별 수상자(작)는 다음과같다.

◇大賞=▲연극=신화1900(金東動연출·실험극장) ▲영화=해당작없음 ▲TV=風雲(黃埈彰연출·KBS)

◇演劇 ▲작품상=신화1900(실험극장) ▲연출상=金東動(신화1900) ▲연기상=李承鎬(신화1900) 孫淑(장화신은 고양이) ▲희곡상=盧昊植(정읍사) ▲신인상=趙慶美(연기·산불의 계절) 李淑(연기·삼풍) 崔仁碩(희곡·어떤 사람도 사라지지않는다) 文錫奉(연출·연인과 타인)

◇映畵 ▲작품상=안개마을(貨泉公社) ▲감독상=林權澤(안개마을) ▲연기상=安聖基(안개마을) 鄭永淑(유혹) ▲각색상=池相學(들개) ▲기술상=車正男(조명·안개마을) ▲신인상=裵昶浩(감독·꼬방동네사람들) 朴宣姬(연기·겨울여자2부) ▲주제가상=羅勳兒(마음은 외로운 나그네) ▲특별상=李斗植(미술지도·들개) ▲문화영화상=녹(삼진영화)

◇TV ▲작품상=風雲(KBS) ▲연출상=黃埈彰(풍운) ▲연기상=李榮厚(거부실록) 李鏡珍(행복의계단) ▲극본상=金起八(김갑순) ▲신인상=鄭漢溶(연기·보통사람들) 鮮于銀淑(연기·꽃가마) ▲주제가상=金蓮子(천생연분)

연기상
연극 李承鎬 孫淑
영화 安聖基 鄭永淑
TV 李榮厚 李鏡珍

◇李榮厚 ◇安聖基 ◇李承鎬
◇李鏡珍 ◇鄭永淑 ◇孫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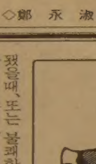
간첩신고 너나없다 수상하면 내가먼저

간첩신고 자수표어

# 電話매너後進國

## 통신공사 수선실주임 朴善熙씨

### "전화기에 화풀이해서야 되나요"



전화는 점점 더 현대사회의 총아의 하나가 돼가고있다. 지금도 우리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와있지만 앞으론 컴퓨터와함께 현대인의 분신처럼 되리란 전망이다. 그런점에서 전화는 소중히 다루지않으면 안될 현대문명의 利器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수선실주임 朴善熙씨(56·사진)는 『제발 전화기에 화풀이를 하지말아달라』고 사정한다. 그때마다 전화기는 아파서 운다고 했다.

朴씨의 안타까움이 아니더라도 부부싸움을 하거나, 거래가 잘 안됐을때, 또는 불쾌한 전화를 받았을때 전화기는 죄없이 수난을 당한다. 수화기를 「꽝」하고 놓는 것은 보통이다. 전화기가 통째로 날기도 하는게 世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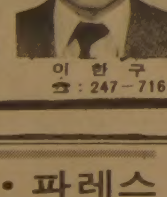
이같은 모습은 18살때부터 38년이나 전화기수리를 해온 「전화기의사」朴씨에게는 더할수 없는 아픔이다. 朴씨는 전화기를 「아기」라고 부르며 그만큼 소중하게 다룬다.

朴씨는 45년 京城공립직업학교 2년을 중퇴, 京城중앙전화국 光化門분국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전화기와 씨름해왔다. 그동안 그의 손에 의해 새생명을 찾은 전화기만도 자그마치 5만대. 지금도 매일 수선실로 전화기를 들고 찾아오는 10여명의 시민을 위해 「아기」를 치료해준다. 전화기를 척보면 이 「아기」가 왜 징징거리거나 삐삐거리는가를 안다. 집어던져 박살난 전화기를 보면 그 주인의 얼굴이 대충 그려지기도 한다.

朴씨가 가장 마음을 쓰는것은 하루가 멀다하고 상처가나 애처롭게우는 공중전화기. 아무리 개인재산이 아니라지만 너무나 험하게 다룬다. 수화기를 떼어가기도하고 동전투입구를 껌으로 틀어막기도한다. 전화기를 통째로 뜯어가면 상처투성이의 모습을보지않아 차라리 마음이편하겠다는 생각도한다.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드라이버와 뻰찌로 상처를수리 해주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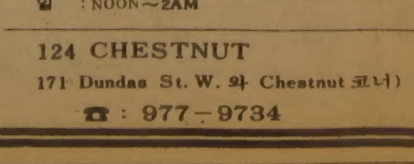
정년을 2년남겨놓고있는 朴씨는 「선진국」「선진국」하지만 전화사용매너는 영락없는 후진국이라고 침을 놓았다. 【宋大洙기자】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이한구
☎ : 247-7161
1575 WESTON RD.

일본식당
舞子
HAPPY HOUR
(월요일~토요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초밥 5개 무료제공
☒주류(포도주, 맥주제외) 두잔에 한잔값만
401 BLOOR ST. E.
☎967-0922 (블루어× 셀본서쪽)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1층 씨로인 예약환영
□가수·신현희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오후3시부터
•북경식요리
•소고기철판구이
•각종홍콩식요리
529 BLOOR ST. W. TOR.
533-3545-6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호섭

THE KOREA TIMES 한국일보 Toronto
광고는 낭비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서어비스
한국일보 533-2361

# "盜學의 大家"

## 귀신처럼 사라진 趙世衡의 盜歷書

大盜 趙世衡이(33) 또 다시 귀신같은 「솜씨」를 발휘했다.

「성곽」과 같은 유명인사들의 집을 그림자처럼 자유자재로 드나들던 大盜는 또 다시 삼엄한 구치소의 경비망을 뚫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법망에 묶인뒤에도 「명문(名文)」이란 평판을 얻은 탄원서를 엮어내는등 갖가지 화제를 뿌렸던 大盜답게 그의 「神話」에 새로운 장(章)을 덧붙인 것이다.

趙는 지난해4월부터 10월까지 4년동안 10여차례의 범행으로 자그마치 5억5천여만원어치의 귀금속을 털었다.

확인된 금액만으로도 「건국이래 가장큰 왕도둑」이란 경찰의 비공식판정(?)을 받았지만 大盜란 칭호가 붙여진것은 유독 유명인사들의집만을 골라 턴데다가 수법도 보통도둑들은 도저히 흉내조차 낼수없는 것이었기 때문.

경찰이 밝힌 피해자만도 재벌그룹회장, 高麗병원장, 전직 국회의원등이었다. 「소문」으로는 훨씬더 쟁쟁한 유명인사들도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모경제부처고위관료 金모씨집, 전직 국회의원 申모, 金모씨집, 유명화장품회사전무집등 趙는 惠化洞 梨花洞 奬忠洞 明倫洞 西橋洞등의 호화주택을 귀신같이 털었다.

피해액도 공식적으로는 5억5천만원이었으나 24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있었다.

趙는 최후진술에서 『경찰이 피해액을 줄였다』고 경찰의 관용을 비꼬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10월 奬忠洞 모 재벌의 사위인 종합병원장집에서 단 한차례 올린 실적만도 3억8천만원어치에 달했다.

5·6캐럿 물방울다이어, 12캐럿 사파이어, 10캐럿케츠아이·3캐럿루비20개·칼채·파텍스·롤렉스 금장시계등등… 유명보석상을 털었더라도 이만한 귀금속은 없었을것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었다.

### 單獨대낮 호화주택만

趙는 범죄세계의 은어로 「도꼬다이」로 불리는 단독범행이 특징. 철저히 낮시간에 범행했다는 점도 특이하다.

갖가지 방범시설과 경비원들이 지키고있는 유명인사들의 집일수록 낮시간이 오히려 밤보다 경비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것이다.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어설픈 공범과 함께 행동하다가는 꼬리가 잡히게 마련이라는 점을 깨달아 언제나 홀로 행동했다.

◇趙는 구치감3층 복도에 뚫어있는 환기통(원내)을 뚫고 구치감건물옆의 경찰유치장2층 옥상을 거쳐 구내매점 1층옥상으로 내려와 담을 넘어 한일병원(왼쪽흰건물) 뒷마당으로 달아났다. (점선참조)

趙의 놀라운 솜씨는 대형드라이버와 작은 쇠막대(일명 빠루)만 가지고 성곽같은 집의 안방까지 쉽게 드나든점에서 두드러진다.

담을 넘어들어가면 한눈에 안방의 위치를 찍어낸다. 대개 창살을 뜯고 들어가 현금·귀금속을 챙겼는데 보석감정안도 뛰어나 값진귀금속만 챙겼다.

범행에 걸리는 시간은 고작 20~30분정도-「예정시간」을 철저히 지켜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으면 깨끗이 포기하고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다.

趙의 또다른 재주는 집에 미제 보석계측기와 전동·세공도구까지 갖추고 손수 훔친 귀금속의 모양을 바꿔 시중에 제값을 받고 팔아온점이다.

趙는 이처럼 귀금속을 빈틈없이 알뜰히 관리해왔다.

지난해11월 경찰에 붙잡혔을때 그의 아파트금고2개에는 2억원어치의 귀금속이 가득차있어 수사관들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을 정도.

趙가 붙잡힌뒤 그가 평소 구두닦이들과 노점상들에게 수십만원씩을 나눠주기도 하는등 「義賊」흉내를 냈다는 소문이 나돈것만보아도 그가 흘러간 도둑王들과 다른것을 알수있다.

趙는 大盜답게 자신의 근본과 이력에 대해 입을다물어 고향이 황해도鳳山이고 고아출신이란것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 孤兒출신 16年옥살이 "24億 털었다"

### 名文탄원서 "피한방울 안봤는데 無期라니"

### 夫人은 부잣집아들인줄…戒護 헛점도

지난1월 재판장에게 보낸 장문의 탄원서에서 『어렸을때 부모를 잃고 유년기를 보육원에서, 소년기는 소년원을 수시로 드나들며 「盜學」을 배웠다』고 스스로 밝혔을뿐이다.

그의 고백대로 趙는 지난 63년 처음 절도죄로 전과를 기록한뒤 11차례에 걸쳐 통산 16년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지난해 4월 7년형을 복역하고 출감한 뒤부터 趙는 대가(大家)의 경지에 이른 솜씨를 과시하듯 도둑역사에 새기록을 남겼던것이다.

그는 1백75㎝의 준수한 체격에 태권도 5단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번도 사람을 해친일은 없었다.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바람처럼 사라져」 들킨일조차 없었기에 당연한일인지 모르지만 흉기를 지닌일도 없었다.

趙는 스스로의 표현대로 「신사」행세를 했다. 지난해 3월 출옥한뒤 술집에서 羅모씨(35)를 사귀어 서울江南區盤浦洞주공아파트 25평짜리를 얻어 살림을 차렸다. 羅씨는 趙가 검거될때까지도 부잣집아들로만 알고 있었다.

趙는 도둑업을하면서도 포니승용차와 1백25㏄오토바이를 타고다녀 범죄세계에선 부러운 존재이기도 했다.

趙는 재판장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장발장은 18년의 징역형으로도 마음이 교화되지 않았으며 신부님의 사랑이 참된 교화로 이끌었읍니다. 비록 도둑질은 많이했지만 다른 사람의 피한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무기징역은 너무 가혹합니다』라고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기도 했었다.

유명인사들의 갖가지 방범조치를 비웃으며 신화를 만들었던 大盜는 이같은 「탄원」이 헛수고임을 느끼고선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 탈주의 길을 택했는지도 모른다.

大盜를 大盜답게 다루지 못한 계호(戒護)의 헛점이 아쉽기만 하다. 【姜秉泰기자】

# 三美는 제집에선 弱한가…

## 홈런 2발등 집중 10安打 맞아

## 張明夫 최악의날…OB에 굴복

프로야구

張明夫의 허리에 이상이생긴탓일까. 선두고지를 고수하기위한 三美 슈퍼스타즈의 선봉장으로 강행군, 15일 시즌4번째 게임에 등판했던 재일동포 張明夫는 OB베어스에 2개의 홈런을 포함한 집중10안타를 얻어맞고 6점을 잃어 패전투수로 물러났다.

仁川홈구장서의 승리를 위해 OB와의 3차전에 두번째 선발로 기용된 張明夫는 이날 9회를 완투했으나 OB의 38타자에게 10안타 3포볼을 허용, 4-6으로 졌다.

張明夫는 이날도 거의 허리를 굽히지 않은채 손목의 스냅으로만 OB타자들과 맞서 4회초 金宇烈에게, 8회초 尹東均에게 각각 솔로호머를 맞는등 홈런2개, 3루타2개, 2루타3개등 잇달아 장타를 얻어맞았다.

4게임에 출장한 張의 투수기록은 2승2패, 38회동안 40안타(홈런3개), 12자책점, 방어율 2·84를 마크하고 있다.

三美는 이날 홈구장서만 3번째 패배를 기록했으나 원정경기서의 연승으로 4승3패를 마크, 롯데와함께 공동선두를 지키고 있다.

롯데는 釜山홈경기서 연장11회말 2死후 4번 金用熙의 결승솔로호머로 해태 타이거즈에 3-2로 신승했다. 해태의 기교파투수 朱東植은 11회동안 7안타로 선투했으나 주력타선의 적시타 불발로 안타수 9-7의 우세를 살리지 못했다.

롯데는 2회말 6번 沈載元의 솔로 호머로 1점을 선제했으나 3회초 해태 선두주자 徐定煥의 3루타, 4회초 金俊桓의 솔로 호머를 맞아 2-1로 역전당했다.

朱東植의 절묘한 컨트롤로 농락당하던 롯데는 7회말 5번 金容哲이 해태3루수수비실책으로 득점 찬스를 마련, 2死후 8번 禹京夏의 중전 적시타로 간신히 동점을 만들어 연장전에 들어갔다.

◇15일전적

◆인천

| | | | | | | | | | | |
|---|---|---|---|---|---|---|---|---|---|---|
| OB | 1 | 0 | 0 | 1 | 1 | 1 | 0 | 2 | 0 | 6 |
| 삼미 | 0 | 2 | 0 | 0 | 1 | 1 | 0 | 0 | 0 | 4 |

金 尹

▲홈런=金宇烈(4회) 尹東均(8회·이상 OB) 鎭雨(9회·삼미)

◆부산

| | | | | | | | | | | | | |
|---|---|---|---|---|---|---|---|---|---|---|---|---|
| 해태 | 0 | 0 | 1 | 1 | 0 | 0 | 0 | 0 | 0 | 0 | 0 | 2 |
| 롯데 | 0 | 1 | 0 | 0 | 0 | 0 | 1 | 0 | 0 | 0 | 1 | 3 |

〈연장11회〉

▲홈런=金俊桓(4회·해태) 沈載元(2회) 金用熙(11회·이상롯데)

◇중간순위 (15일현재)

| | 해태⑥ | OB⑤ | 삼성④ | MBC③ | 롯데① | 삼미① |
|---|---|---|---|---|---|---|
| 승 | 1 | 4 | 3 | 5 | 4 | 4 |
| 무 | 1 | 0 | 1 | 0 | 0 | 0 |
| 패 | 3 | 5 | 3 | 4 | 3 | 3 |

◇이것이 프로選手다… 진짜프로는 이렇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서 자주 보게되는 장면이다. 최근 뉴욕·양키즈와 디트로이트·타이거즈대전 9회에서 양키즈의 3루수 그레이그·네틀스선수가 파울볼을 잡기위해 전력질주하다가 덕아웃에 거꾸로 처박히고있다. 【UPI】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 땅끝에서 오다 <34>

金成一 作

### 안개속에서 온 密書⑦

준호가 본부장실에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직원이 텔렉스 용지 한장을 전해주었다. 동경의 우에다 [illegible]가 발신해온 텔렉스였다.

『……?』

준호는 텔렉스 내용을 읽어내려 가다가 머리 속이 하얘오는 것을 느끼며 근처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다시 눈을 부비며 텔렉스 용지를 들여다 보았다.

"DBP
BELLE 258867F
0401 12:35
072023881
DF
23881 LEEJIN J
BELLE 258867F
TLX LBP 03381
JAN 04, 1982
ATTN: MR. JH LIM
SA 530807 LK 2226 PR 0913071920 COS
0605 KL 42063717 PS 2219 SWL RGDS.
BELLE 258867F"

LEEJIN은 리진물산의 상호였고, J는 일본 이란 뜻이고 23881은 동경지사의 텔렉스 번호였다. 1월4일 12시35분에 발신한 것이었다. DF는 상대방과 연결되었으니 교신하라는 신호였다. BELLE는 상대방의 상호인 모양이고 258867은 상대방 텔렉스 번호였다. F는 프랑스를 의미하고 있었다. 그 다음줄의 TLX는 텔렉스 자기네 텔렉스번호를 의미하는것 같았다. LBP는 아마 LABELLE, PARIS쯤 되겠지. 1982년 1월4일 ATTN은 어텐션(…귀하)의 의미였다. 그러니까 임준호 귀하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 무슨 부속 이름 같기도 하고 어떤 번호(주문번호) 같기도 한 것이 [illegible] 서는 도무지 그런 약어나 번호를 본적이 없었다. 더구나 그 숫자는 자리 숫자가 일정치 않았다. 53087은 다섯자리, 0913071920은 열자리, 42063717은 여덟자리 숫자였다. 2226, 0605, 2219는 네 자리 숫자였다. 끝의 SWL은 아마도 이 세원의 이니셜 S. W. LEE를 뜻하는것 같았다. 이 텔렉스를 보낸것이 이 세원 부장 그 자신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는 정중하게 RGDS(REGARDS)까지 붙여놓고 있었다.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는 의미였다.

준호는 얼른 시계를 보았다. 10시20분. 그는 옆에 서 있는 직원에게 물어보았다.

『10시20분이면 파리시간으로는 몇시죠?』

직원은 수첩을 뒤적거리더니 대답했다.

『오후 2시20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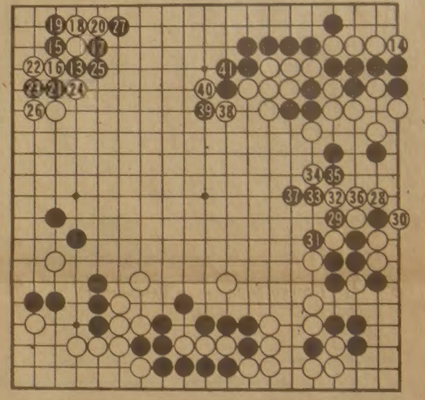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파리지사에 텔렉스를 넣어야 되겠읍니다』

그들은 텔렉스실로 뛰어갔다. 파리지사의 텔렉스를 넣었다. DF가 나왔다.

파리지사장 귀하.

BELLE 258867 이라는 텔렉스번호를 가진곳을 찾아서 1월4일12시35분에 LBP 03381번 텔렉스를 친 사람이 누구인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텔렉스의 내용은 암호인듯하며 이 텔렉스를 친 사람은 이 세원부장의 행방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로젝트본부장.

## 第14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白、必勝의 局面

第14局 第7譜 (1~41)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徐能旭 〈1勝2敗〉
黑(7段) 盧永夏 〈2勝2敗〉

지칠줄 모르고 계속하던 우상귀 패싸움도 黑이 패감부족으로 좌상귀에 黑13의 생패를 쓰고 白14로 따내는데서 겨우 끝이났다.

黑13에서 거듭15로 젖히는 바꿔치기는 아무리 변해도 우상의 손실을 보충할수 없다.

국후검토때 누군가 『白14로 따먹힌 모습은 원자탄을 맞은격』이라 했지만 사실 그것이 욕계를 말하자면 黑의 손실은 달리 비유할 말도없다.

黑이 거의 절망적인 가운데 계속 두어본 좌상귀의 변화에서 黑23의 회생타는 실상 상변을 확보하기 위하여 常用하는 수법인데 그러나 白도26의 선수로 안정되어 불만이 없다. 黑만해서 黑이13, 15 두수를 거듭소비한 것치고는 별무소득이란 얘기다. 더군다나 白은 그선수로 아리송한채 남아있었던 우변에 활용하여 28이하 36, 그리고 계속해서 白38에 젖히게 되어서는 필승의 국면이다.

黑37 다음 黑39에 28로 손비했다. 이제와서는 좌우간 상변을 최대한 확장하는길 밖에없다. 아가는 정도로는 黑39로 굽게 40자리를 뻗어나 이길 가망이 없다.

白40을 선수로 당하여 뒷맛이 고약하지만 그걸 가릴처지도 아니다. 자, 白은 어떻게 黑의 허를 찌를것인지. 【二瓜】

## 張吉山 <1717>

黃晳暎 作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77)

늦가을에 접어들어 단풍물든 나무들도 잎을 떨구기 시작하였고 마른 풀에는 서리가 보얗게 끼었다.

오계손은 실로 오랜만에 사신당에 가는 길이라 폐손된 꼴을 처음 보았다. 갈대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바람결에 날리고 있었으며 드문드문 산국이 [illegible]月)색으로 피어 한들거렸다. 이리 저리 무너진 돌담과 타버린 집터를 지나 마을의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연기나는 집이 몇 호 보이는 것이었다. 계손은 새로 두른 청솔 울바자를 돌아서 마당으로 들어섰다.

『원향이 있느냐?』

마침 신당을 차려둔 안방에서 기도중이던 원향이 소스라치게 놀라 뛰어 나왔다.

『삼촌께서 웬일로 원행이십니까』

『그래 수도는, 진전이 많더냐?』

『아직 늘인 공이 없지요』

오계손이 원향의 안색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음, 얼굴에 신기(神氣)가 깃든 것을 보니 이 당이 명당인 모양이다』

『구월산 정기 탓이지요』

계손이 보기에 원향에게서는 여인의 자색이 사라졌고 어딘가 냉랭하고 살기가 질렸어 보여서 감히 범하지못할 분위기가 감돌았다. 눈빛은 쏘는듯 하고 얼굴은 무표정하며 마치 백지에 그린 것처럼 인상이랄 것이 없이 뇌리에 남지 않았다. 그가 좋은 말을 하여도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지나가는데 표정은 역시 같을 뿐이었다. 아마도 사선에서 관군의 손에 죽은 착한 백성들의 원령이 신통한 영력으로 그 여자에게 깃들었는가.

『안으로 드시지요』

원향이 청하여 오계손은 들어가서 신당을 마주하고 앉았다. 화상도 없고 향촉도 없으나 나지막한 선반위에 인부당이 내려준 요령과 신칼 그리고 징과 바라다 놓아서 퇴색한 홍철릭 한벌이 착곡착곡 정리되어 얹혀 있고 바가지에 정갈하게 담은 쌀 한 되가 있을뿐이었다. 오계손은 방안을 한바퀴 둘러보고 말하였다.

『날 따라서 소메로 나가지 않은게 오히려 네게는 좋은 일인것 같구나. 나는 어느당이든 안가본 데가 거의 없으니 만신의 영험은 살에끼치는 감으로 대번에안다. 원향이가 성신과 함께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어찌 오셨는지요…』

『응 그래, 네가 재인말 큰 만신께서 내려준 내림굿을 했으나 이제는 진좌(鎭座)를 할때다. 마침 우리 해서계원들도 꽃맞이를 못하였으니 이번에 단풍맞이로 축신(祝神)굿을 해야 겠다』

오계손은 잠깐 사이를두었다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너도 아직 세상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연소한 아녀자라 하나 대충 어찌 돌아가는지 눈치는 있을 터이다. 내가 듣기로 네 가족은 풍천 삼척부터 칠학을 받아 유리하다가 월정사 풍엘 스님에게 전해졌다지. 구월산의 활빈당이 모두 토포되고 인근에 살던 백성들은 죄도없이 죽고 다치고 쫓겨났다. 네 신어머니 되시는 안 무당도 그런 포한을지니고 돌아가셨다. 네가 일찌기 계화부부에게 구원되어 신천에 찾아왔을제 나는 네 실성한 꼴을 보고 수십번 입술을 깨물었느니라. 너는 비록 그 당시 실성했었다지만 여환 스님을비롯한 우리들의 결의를 눈치챘을 것이다』

『명심하구 있어요』

오계손의 장황한이야기를 자르는 것처럼 원향은 조용하게대꾸하였다.

『우리 무당들의 계에 대하여도 조금은알지요…』


City of Toronto

You too can

**Help Run City Hall…**

We need your help in broadening the representation of racial and ethnic minority groups, wome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on City of Toronto Boards and Committees, to better reflect the cosmopolitan nature of the City.

At mid-year, the following citizen appointments must be made:

| Agency | Number of Appointments |
|---|---|
| BOOK AWARDS SELECTION COMMITTEE<br>For further information call<br>Ina Thompson at 947-7022 | (5) |
| COMMITTEE OF ADJUSTMENT<br>For further information call<br>Charles Taylor, Administrator<br>and Secretary-Treasurer at 947-7565 | (7) |
| HOUSING STANDARDS AND NON-RESIDENTIAL STANDARDS APPEAL COMMITTEE<br>For further information call<br>Ina Thompson at 947-7022 | (6) |
| TORONTO RECYCLING ACTION COMMITTEE<br>For further information call<br>Jane Lockwood at 947-7025 | (4) |

Do any of these organizations interest you? With our new Outreach Programme it's easy to apply. Just telephone 947-7020 and ask for an application form.

Your application must be received by the City Clerk, 2nd Floor, City Hall, Toronto, M5H 2N2, no later than Monday, May 9, 1983.

A nominating committee will choose the candidates best suited for these positions. Preference will be given to residents of the City of Toro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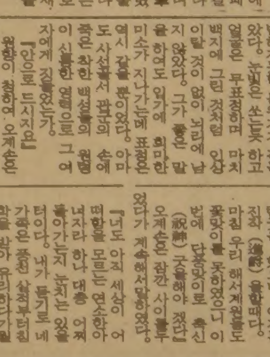


숙녀복전문점
미라지
676 BLOOR ST. W.
(한국비데오 옆)
530-1870
권 수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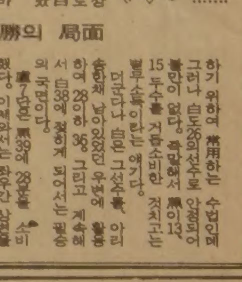


사형수로 옥중15년 복음전파사명 받은 원충연 집사 간증!!

이줄을잡아라
저도가증집회



일본 중앙대학 법과졸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
서울 문리대 정치학 강사
미국 보병학교 졸
미국 참모대학 졸
육본 정훈감실 차감
서독대사관 무관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
15년간 사형수로 옥중생활
"이줄을 잡아라"저서
현 승동교회 집사




■때 : 4월22일(금)~24일(주일)밤7시30분
■곳 : 새한장로교회
105 Wilson Avenue, Toronto, Ontario M5M 2Z9
문의전화 : (416) 482-4577 (사무실) (416) 665-3132 (사택)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문의 바랍니다. ☎ : 533-2361

##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 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운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아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 구 인

APT 룸메이트구함. 시내에서 10분.
1 Room과 리빙룸. 월200불. 즉시입주가능함.
#1410, 55 Triller Ave.(직접내방요) 전화 : 624-0098

---

여자룸 메이트구함.
학생환영. 오후10시 전화.
전화 : 593-6228

---

지렁이 잡으실 분
좋은 농장 준비돼있음.(다운타운)
전화 : 533-7759

---

"거구장"
경험있는 요리사와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전화 : 742-1618.

---

새 장비를 갖춘 버라이어티상점(Soter)
메니져 구함.(월수입 3,000불 보장, 약간 보증금요)
전화 : 1-727-6665 (AURORA)

---

급구 가게맡아서 하실분. 년매상 26만불.
Stock만 지불. 렌트 700불. 조건없음.
1-(705)454-3411 Jim

---

Korean Village Restaurant
주방 남자헬퍼 1명, 여자헬퍼 1명구함
628 Bloor St. W. Tor. 전화 : 536-0290.

---

식품점에서 일할 젊은이 구함.
오후6시-오후 10시까지(주7일간). 시간당 $4
원하시는 분은 삼복식품으로 직접내방 바람

---

가정에서 재봉일 하실분구함.
(오바록과 공업파워미싱소유자로서 유경험자)
상세한 문의는 전화 : 530-1046(오후6시이후)

---

풀타임 경험있는 캐쉬어 여자구함
전화 : 465-8167

---

주말에 일할 경험있는 남자헬퍼 구함.
전화 : 883-1956(오전중) Mr. 리.

---

버라이어티 스토어
리스 또는 매니지먼트. 주매상 $9,000
전화 : 251-3559(12:00~6:00pm)Mr. 송

---

샌드위치 커피숍에서 일하실 분 구함.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유경험자 원함.
직접 내방바람. (오후 3시~5시30분까지) 금~토
55 University Ave. Mrs. 한.

---

〈새동네 펜팔클럽 회원모집〉
금번 본 클럽에서는 모국과 캐나다사이에 사업연결 또는 배우자관계 등등. 그리고 양자, 양부모 희망자등에 관심있으신 분에 한해서 선착순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상담 기간은 4월18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매월 2일간 봉사합니다.
*유자격 : 만30세-60세 전후
*기 간 : 월-금(오후1시~5시까지)
*전 화 : 530-1046
새동네 펜팔클럽회

---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533-2361**

## 구 혼

신부 구함. - 진실하고 건강한 여성 구함 - 저는 45년생(시민권 소지자)으로 개인가게를 갖고 있음. 꼭 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랍니다. 전화 : (B)273-3920, (R)273-9821 Mr.리

##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 개 인 지 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

---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 한국기관·해외지사

| | |
|---|---|
| 총영사관 | 598-4608 |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 외환은행 | 364-2890 |
| 외환은행 Bloor지점 | 533-8593 |
| 한일은행 | 865-0456 |
| 조흥은행 | 363-3448 |
| KAL | 862-8250 |
| 현대자동차 | 477-0202 |

## 교 민 단 체

| | |
|---|---|
| 한인회 | 755-9288 |
| 노년회 | 755-8079 |
| 실업인협회 | 533-7923 |
| Y.M.C.A. | 536-1166 |
| 코리아타운번영회 | 535-2091 |
| 동우회 | 261-2917 |
| 호남향우회 | 677-1888 |
| 캐나다체육회 | 248-8846 |
| 한인신용조합 | 533-9387 |
| 천주교신용조합 | 363-0097 |
| 한인태권도협회 | 630-3095 |
| 상공인협회 | 444-3716 |
|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 533-2361 |
| 영남향우회 | 249-6830 |
| 송공문화협회 | 444-3658 |
|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 593-8943 |
| '88 올림픽후원회 | 622-3674 |

## 매 매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Nobleton)
9년 리스
전화 : 859-4554

---

맥스 프랜차이스 매매
오샤와 지역
전화: 1-723-8632

---

전망좋은 버라이어티 매매
주매상 $5,500. Asking $60,000+스탁
꼭 관심있는 분 연락바람. 전화 465-4358 Mr .김

---

금고를 이용하세요!!
*완전써비스 *각종모델 *100불부터 보험가입
*자세한 사항은 690-8950 David

---

그로서리 가게 매매, 해밀톤 지역.
Gross Income 월 $6,900. 아스킹 $4만+스탁
전화 : 1-560-6400 Mr. 정

---

Fruit Store(과일가게)
Plaza안에 있고 좋은 Turnover
전화 : 745-2300 Jim Taylor, Re-Max West Realty inc.

---

보석및 선물가게 매매
비즈네스가 잘되는 시계및 보석취급으로 오래전에 세워진 가게임. 전화 : 531-4486(낮), 635-0511(저녁)

---

빵가게 (프라자내)
$50,000(도구 포함). LEASE(5 YRS)
Dufferin & Steele. Call Susan Tallilo 745-7551

---

이익 좋은 버라이어티 가게 매매.
일요일 문닫고 2층에 살림집 있음.
자세한 문의는 전화 : 266-4866.

---

3개월 사용된 선반달린
20 ft. Vegetable Cooler 급매
전화 : 421-6880 Mr. 리

---

MEAT SHOW CASE(고기냉장)길이 12휘트(ft)
537-1664 Mr. Foto. 972 Ossington Avr.

---

버라이어티 가게 매매. 주매상 $7,000이상+건물
전화 : 921-4283(오후1시-3시사이)
456 Gerraed St. E.(at River)

---

보석·선물가게 매매
주인이 은퇴함(외국사람)
전화 : 742-7399 오후6시이후 연락바람

---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5년리스(렌트 $1,100) 아스킹 4만+스탁(로타리오머신 및 비데오머신 2대)
전화: 535-1916

---

밍크직매점 후랜차이스 매매
다운타운 호텔안에 있음. 연수입 보장.
약간의 보증금 요함. 전화: 532-8662, 535-7878

---

★응 담★
캐네디안산. 증거물 있음.
여러 크기. 가격 : $70
전화 : 534-7786 (저녁)

---

최신형 고급 카메라(신품) 매매
라이카 M4-P, 90mm 렌즈, 와인더, 메타, 케이스
Regular 가격 : $2,500. 파는 가격 : $1,740
★꼭 사실 분만 연락요망.
전화 : 630-5474

---

버라이어티스토아 이사관계로 매매
2 Bedroom 아파트와 차고 포함
12만9천불+Stock(해밀톤) 전화 : 1-389-7755 Mr. 차

---

(1)위치 좋은 드라이브·인 햄버거 플레이스.
주매상 $6천. 리스 1994 + 5년옵션 Rent $1,800
(2)시간짧은 스모크 & 버라이어티. Subway 입구에 위치함.
주매상 $3,500. Rent $400. Asking $3만5천.
(3)Fish & Chips Store. 5일오픈. 주매상 $2,500. Rent $725.
Asking $7만9천.
(4)여자혼자서 운영할수 있는 Pick up 드라이크리닝 런드리멧. 주매상 $1,000. 렌트 $750. Asking $2만5천.

전화 : 741-9170. Mrs. Woo. A.E. LePage Ltd.

##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

베출러 Sublet
전망좋음. 즉시 입주 가능. 월$319
전화 : 533-8197. King & Dufferin

---

아파트 임대. Large 1 Bed Room.
수영장, 사우나있는 고급 아파트.
$410/Month. Mr. 리. 전화 : 863-6072

##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

정손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H). 463-7423(B) 이송원

##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토알욕) 전화: 255-4745

##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 보 험

Pro Insurance Prokerages Inc.
P.O. 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illegible]

---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CHARGEX VISA
★한국일보 : 533-2361

##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

T.V. 수리는 .........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방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